

대신대학원대학교 2018년도 입학식 및 총장 이.취임식 드려

명예총장 황원찬 박사 추대, 서재주 박사 신임총장에 취임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황원찬 박사)는 지난 2월 26일(월) 오전 11시 본교 체플실에서 2018학년도 입학식예배를 드린 후 총장 황원찬 박사의 이임식과 신임 총장 서재주 교수의 취임식이 진행되었다.

교목실장 박재봉 교수의 인도로 총장, 법인이사장, 교수 순으로 입장을 하고 개회사에 이어 김봉구 교수의 기도, 김복식 계약학과장의 성경봉독(갈2:20~21), 총장 황원찬 박사는 "내가 산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황다니엘 법인이사장이 신임총장

을 소개하고, 전 총신대학교 총장 김의원 박사와 이진섭 박사가 축사했다.

이어 총장 황원찬 박사의 이임사가 있었으며, 대신대학원대학교는 황원찬 박사를 명예총장으로 추대했다. 또한 이주환 법인국장은 학사보고를 통해 김창진 외철학박사(Ph.D) 11명, 목회 신학박사 1명, 신학석사(Th. M) 12명, 목회학 석사(M.Div) 13명, 문학석사(M.A) 30명 등 총 67명이 입학하고 새학기가 시작되었음을 보고했다.

이어서 신임총장 서재주 박사는 안병준, 이강철, 윤지희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취임사 및 훈사를 통해 학우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후 명예총장 황원찬

박사는 신입생들과 학우들을 환영하고 축사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EXPLO 2018 제주선교대회 개최

제주선교 110주년, 한국CCC 60주년 기념으로 공동 개최

제주선교 110주년, 한국CCC 60주년을 맞아 제주도기독교단협의회(회장 신관식 목사, 제주법원교회)와 한국CCC(대표 박성민 목사)가 공동으로 오는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Jesus for Jeju, Jeju to Jesus'를 주제로 새별오름을 비롯한 제주도 전역에서 '엑스플로2018 제주선교대회'를 개최한다.

제주선교대회에는 CCC 대학생 1만 여명과 해외 30개 국 대학생 1000여명 그리고 제주 430개 교회 목회자와 성도 1만5천 명이 참가하는 제주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참여하는 초대형 대회다. 저녁집회는 박성민 목사와 이찬수(분당우리교회) 목사, 신관식 목사가 주강사로 나선다.

대회 이후 7월 3일까지는 CCC 대학생들이 제주 지역교회, 마을, 학교로 흩어져 마을청소, 헌혈, 여름성경학교, 의료봉사, 외국어캠프, 청소년 멘토링, 율레길과 해변가 청소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주도민을 섬기게 된다.

이어 12일까지는 지역교회와 함께 제주도 선교에 힘을 쏟는다. 방문전도, 어린이·청소년 집회, 지역 복지관 봉사, 자원봉사, 음악교실, 태권도 공연 등 다



▲ 좌측부터 류정길 목사(제주성안교회, 기획위원장), 신관식 목사(제주법원교회, 제주기독교단협의회장), 박성민 목사(CCC 대표), 이연균 목사(CCC, 공동준비위원장), 김철영 목사(CCC, 홍보위원장)

양한 활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제주단기선교를 진행한다.

신관식 목사(공동대회장), 박성민 목사(공동대회장), 류정길 목사(제주성안교회, 기획위원장), 김철영 목사(제주평안교회, 공동준비위원장), 이연균 목사(CCC 대학사역 책임, 공동준비위원장)등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조예홀에서 '엑스플로(EXPLO) 2018

제주선교대회'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교회의 기도와 참여를 당부했다.

김철영 목사(CCC, 홍보위원장)의 진행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단협의회 회장 신관식 목사는 제주도 부흥의 기록제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신 목사는 "제주선교가 올해로 110주년이 되었다. 지금 제주교회는 내륙에서 내

려운 이주민들로 인해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제주도 복음화율은 9.9%로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신 목사는 "이러한 특별한 때 제주에 있는 450여개 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교회 부흥을 이루고,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일에 헌신하려고 한다."며 "이 귀한 일을 CCC와 함께 하려고 한다. 이를 계기로 제주 땅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CCC 대표 박성민 목사는 "이번 제주선교대회는 제주선교 110주년, CCC 60주년, 4.3 7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에 열리게 된다."며 "이번 제주선교대회는 CCC가 여름수련회를 단순히 제주도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CCC가 가진 모든 사역역량을 총동원해서 6월에 열리는 제주선교대회 기간 뿐 아니라 대회 전후로 제주교회와 함께 다양한 사역전력과 방법으로 제주도를 변화시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를 'Jesus for Jeju, Jeju to Jesus'로 정한 엑스플로 '74대회는 1974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한국 교회 32만3419명이 등록해서 민족복음화 요원훈련을 받았다. 이후 1년 만에 한국교회는 110만명이 성장했다. 김철영 목사(공동준비위원장)는 한 달에 한번은 전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류정길 목사(기획위원장)는 제주도에 17개의 교단, 430개 교회가 있는데 이를 하나로 묶는 것이 바

로 제주특별자치도기독교단협의회이다. 이 협의회를 통해 제주복음화를 위해 제주교회와 CCC가 연합해 힘을 하나로 모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 목사는 또 "두 번째는 선교이며, "마지막으로 평화라면서"이번 제주선교대회를 통해 모든 제주 교회 성도들이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 제주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도록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제주선교대회를 통해 평양에서 이기풍 목사가 가지고 내려온 복음이 다시 한라에서 평양을 지나 백두로 뻗어나가 통일의 물결을 터서 청소년과 청년들 다음세대가 통일의 꿈을 노래할 수 있는 대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준비위원장 이연균 목사는 "이번 대회는 제주선교 110주년을 기념하여 110년 전에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에 보인 사람과 복사의 정신을 본받아 68만 제주도민과 지역을 실제적으로 섬기는 운동을 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30개 국 1,000명의 해외 참석자들이 제주지역 전역에서 영어캠프와 중국어캠프를 실시 함으로 제주학생들과 국제적인 교류의 장이 되며 어린이, 청소년 전도의 접촉점으로 활용될 것이며, 참석자들의 무료 의료 진료활동과 지역봉사활동을 통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PLO2018 제주선교대회는 CCC 60주년과 제주선교 110주년을 맞아 제주교회

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었다. 지난 2017년 2월 열린 CCC전국목회자 회의에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 단협의회 소속 목자들이 참석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지난해 5월과 11월에는 CCC와 제주 교계 지도자 초청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가졌다. 또한 박성민 목사는 "특히 제주 현지인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환영을 받았고 실제적인 제주선교대회 프로그램은 계획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신관식, 김종명, 류정길 목사는 서울의 종대형교회들을 방문해 엑스포로 2018제주선교회를 소개하고 기도와 참여를 요청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목사 이영훈 목사), 광림교회(담임목사 김정석) 등은 자체 청년대학생 수련회 대신 제주선교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또한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이재훈)는 주일에 배 때 제주선교대회를 위해 비전헌금을 했다고 밝혔다. '엑스플로(EXPLO) 2018 제주선교대회'가 CCC와 제주도 교계간의 행사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전폭적인 참여로 제주 선교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JTNTV인터넷방송 http://jntv.kr 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소진우 목사 2016년-2018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칼럼리스트

2016년 9월	2016년 12월	2017년 4월	2017년 7월	2017년 10월	2018년 2월
5-8 교단총회	4-7 주님의교회(영성목사)	3-5 홍주교회(고영석 목사)	2 천보산기도원(정제원)	2-5 추석주간	5-8 감리산(도원)이복만 원장
12-17 추석주간	12-15 천보산기도원(정제원)	6 오산리금식기도원(정제원)	3-6 광선수양관(정제원)	9-10 정기노회	11 천보산기도원(정제원)
19-23 선교지방문	18-24 겨울부흥성회(예복교회)	9 천보산기도원(정제원)	10-12 사랑의교회(고영석 목사)	16-18 주사랑교회(조영우 목사)	12-17 설 주간
25 천보산기도원(정제원)	26-30 은사리교회(최태식 목사)	10-13 오정성교회(이정우 목사)	17-19 모리교회(조선의 목사)	22 천보산기도원(정제원)	19-21 점촌교회(류우 목사)
26-28 다사랑교회(봉현 목사)		17-18 정기노회	24-28 선교지선교(정제원)	30-4 인도사역지방문주간	26-28 실목교회(조만희 목사)
29 군산별교회		18-20 양배교회(정진수 목사)	30 천보산기도원(정제원)		
2016년 10월	2017년 1월	2017년 5월	2017년 8월	2017년 11월	2018년 3월
3-6 예스교회(김양선 목사)	2-4 거창성결교회(김성현 목사)	7 천보산기도원(정제원)	3 안양팔당성회(정제원)	5-8 주안중앙교회(박운순 목사)	1월 안양팔당성회(정제원)
10-11 정기노회	9-12 실목교회(조만희 목사)	8-12 네팔산교회(정제원)	7-10 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 원장)	13-15 동계부흥성회(예복교회)	4월 천보산기도원(정제원)
17-21 열방수련회	16-18 종기교회(백한기 목사)	15-17 주영광교회(정제원)	11 한일산기도원(정제원)	19 천보산기도원(정제원)	
23 천보산기도원(정제원)	23-28 (연도선교)	21-24 사랑의교회(고영석 목사)	14-17 광은기도원(정제원)	20-22 열린중앙교회(정제원)	
24-27 새전영교회(정제원)	30-2 광은기도원(정제원)	29-31 초대교회(윤준호 목사)	21-24 감리산(도원)이복만 원장	27-1 필리핀 사역자 컨퍼런스	
31-11,2 홍주교회(고영석 목사)			27 천보산기도원(정제원)		
2016년 11월	2017년 2월	2017년 6월	2017년 9월	2017년 12월	2018년 4월
5 안양팔당성회(정제원)	3 한일산(도원)이복만 원장	4 천보산기도원(정제원)	4-8 온누리복음화협의회(정제원)	4-6 삼동교회(정제원)	1월 천보산기도원(정제원)
7-9 실목교회(고영석 목사)	6-9 감리산(도원)이복만 원장	4-8 빛과소금교회(송영만 목사)	11-14 교단총회	11-14 천보산기도원(정제원)	2월-4월 광명성결교회(정제원)
14-16 강천교회(이원정 목사)	13-17 선교지방문	12-16 선교지사역방문	18-21 종기교회(정제원)	16-21 파천예배교회(정제원)	9월-11월 산동교회(정제원)
17-18 노회지교회(정제원)	20-22 초대중앙교회(정제원)	18-30 본교회 2주연속심리상담회	24 천보산기도원(정제원)	26-29 송구영신을 위한 산상기도	16월-26일 예복교회부흥회(소진우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정제원)	27-1 중동교회(정제원)		25-27 비전교회(정제원)		29월-3월 천보산기도원(정제원)
21-23 총회성회					
28-30 행복예수원교회(정제원)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 (장암동)

한국을 사랑한 영적 거성 빌리그래함 목사의 별세를 애도하며

20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전도자인 빌리 그래함 목사가 21일 몬트리올의 자택에서 향년 99세로 별세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그래함 목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로 주님의 품안에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그의 삶의 궤적을 돌이켜보면 1918년 11월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에서 태어난 그래함 목사는 1940년 플로리다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침례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로스앤젤레스(LA) 전도대회를 인도하면서 미국 전역에 이름을 알렸다. 이후 '빌리 그래함 전도협회'를 설립해 전 세계적인 선교에 나서면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래함 목사의 우리나라 사랑은 각별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인 전쟁중이던 1952년 한국을 방문해 미군들을 위로하고,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각종 집회를 통해 환경적 목사를 비롯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만났다. 성탄절에는 경부대(京釜臺)에서 이승만대통령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 전도집회의 음반을 1953년 발매하였다. 그의 설교가 담긴 타이틀은 'Let Freedom Ring(자유가 울리게 하라)'이었다. 또 음반에는 이승만 대통령과의 대화를 함께 수록하여 한국에 전쟁중에 있던 한국에 대한 자유와 평화를 위한 지원과 한국교회가 공산화를 막는데 기여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였다.

전쟁이 끝난 1956년 다시 방문하여 한경직 목사와 함께 한국교



회의 부흥과 재건에 복음전파로 기여하였다. 한국교회는 그래함 목사에게 많은 빚을 졌다. 그것은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라 영적 지원이었다. 한국교회의 급성장에는 1907년 원산대부흥 이후 70년대에 수많은 부흥성회 이외에 대부흥운동이 있었다. 73년 빌리그래함 전도집회, 엑스포로 74가 바로 그것이었다.

1950년대 이후 73년 다시 한국을 방문한 그래함 목사는 집회의 시작에 "한국은 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그를 통하여 필자는 한국과 한국민을 사랑하는 그의 심정을 느끼게 하였다. 1973년 여의도 5.16광장 및 전국을 투어하며 열린 그래함 목사의 설교는 복음을 알기 쉽게 전하여서 연인원 50만명이 목표이었으나 100만명이 참여하는 등 한국교회가 하나되려는 하나가 역사하신다는 가능성과 함께 한국교회가 폭발적 성장을 가져오는 접화의 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

이는 한국 개신교계의 역사적 명장면으로 꼽힌다. 그래함 목사 자신도 "2천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크고 역사적인 전도의 날이며, 한국 어느 곳에서나 영적인 감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감격을 쏟아낸 바도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국교회는 5천만 민족의 복음화라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그의 메시지에는 '북한 동포해방'을 위한 메시지를 통해 북한교회의 재건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 1972년 '빌리 그래함전도집회', 1974년 '엑스포로'74' 집회로 이어진 전도와 철야기도, 산기도의 열정으로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다. 엑스포로 74 전도집회에는 334만 명 이상의 인파가 운집했고, 100만명의 결신자를 내었다. 권위주의 통치시절 국민들의 영적 통로 역할을 했던 이런 영적 전도집회가 종교적 차원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차원에서도 선하고 큰 영향을 미쳤다.

1980년 '나는 찾았네' '세계복음화대성회' 등에 설교자로 꾸준히 방한해 한국교회 부흥의 불을 지폈고, 그런가하면 1990년대에는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1994년에는 북한을 방문해 당시 김일성 주석과 면담을 갖고 성경과 함께 복음을 전하였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아들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역시 북한을 수차례 방문하며 구호 활동을 펼치고 역시 평양 불교교회에서 설교하였다.

별세하기 얼마전까지 그래함 목사는 "내 남은 생애 가운데 한국의

남북이 통일된 모습을 보고 싶다"면서 "통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주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통일은 꼭 이루어진다"고 당부했다.

그래함 목사는 60여 년간 목회자로 활동하면서 설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썼다. 2억여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영적지도자로서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 이후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모든 미국 대통령의 '영적 멘토'로도 활동했다.

불꽃같은 삶을 산 복음주의자 그래함 목사의 별세를 통해 한국교회도 영적 거성을 잃은 아픔으로 함께 애도하며, 한국교회에도 빌리 그래함처럼 복음적 영성과 더불어 사회적 균형 감각을 지닌 복음 전파에 일생을 건 전도자로서의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큰 영적 지도자가 나와야 할 때이다.

글쓴이: 한국교회건강연구원 이효상 원장

한기총 증경대표회장 교단장 단체장 긴급 성명서 발표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 전면 거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증경대표회장 교단장 단체장들이 14일 오전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24대 대표회장 선거를 전부 거부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에서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의 월권행사와 직권남용이 도를 넘어 불법이 난무한 상식이하의 결정을 하였다"면서 분노했다.

특히 "선관위원장은 제19회기 총회에서 선관위가 서투미비로 후보 자격을 탈락시키고, 정회중인 상태에서 이미 탈락한 후보에게

자격을 부여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새로운 후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한기총 정관을 위반한 24대 대표회장 선거를 전부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는 "어떤 특정 후보를 두둔하거나 편파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님"을 밝히고, "한기총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불미스럽고 탐욕적이며 초법적인 형태를 계속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주요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증경대표회장들과 기관, 단체장들은 "한기총 선관위는 해체하

라. 선관위원장은 물러가라. 임시의장 김창수는 사퇴하라"는 구호제창을 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무튼 양측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4대 대표회장 선거를 둘러싼 감정의 대립은 법정 싸움으로 치닫한다면 결국 한기총 24대 대표회장 총선은 어렵게 될 것이며, 자칫 한기총은 해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를 지켜보는 한국교회와 언론은 답답하면서도 양측이 서로 화해하고 하루속히 한기총의 정상화가 되기를 기도한다.

'237개국 살리자' 제22차 세계선교대회 열려 60개국 6,100여명 참가,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 다짐해



세계복음화전도협회(이사장 류광수 목사, 이하 전도협회) 세계선교총회가 주최하는 '제22차 세계선교대회(대회장 장인성 목사)'가 13일 서울 강서구 예원교회(담임 장은주 목사) 컨퍼런스홀에서 60개국 6,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대회는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을 슬로건으로 '제3RUTC시대의 응답으로 선교의 방향을 찾고 차세대 선교의 비전을 준비하는 대회, 모든 교회와 성도가 선교로 Oneness가 되어 237개국 나라 선교의 배경이 되는 대회, 2018년 한해 동안 인도 받아갈 선교의 응답과 비전을 소통하는 대회로 진행되었다.

대회장 장인성 목사는 '이번 세계선교대회를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큰 은혜를 받고 치유받으시길, 영적 서밋으로 무장하여 모든 선교현장을 살리고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개교회마다 자체 선교대회를 통하여 선교의 바람이 일어나며

선교의 바람을 타고 차세대 선교사들이 힘 있게 일어나게 될 것이며 개교회 모든 교회가 복음과 선교로 원네스되어 본격적인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선교축제가 오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라고 환영인사를 했다.

선교대회는 뜨거운 환호와 박수 속에 대회기 및 60개국 기수단이 입장했다. 대회기는 김세희 선교사가 대회장 장인성 목사에게 전달했다. 이어 장인성 목사가 "제22차 세

계선교대회 회의를 선언합니다."라고 대회선언과 함께 축하축적이 터지며 힘차게 개막되었다. 이어 축사순서로 장은주 목사(전도협회 협회장), 박지은 목사(증경총회장)가 선교사님들에게 환영축사를 했다.

아울러 류광수 목사(전도협회 이사장)가 환영사를 전했다. "이날 대회에서 류 목사는 '237개 치유하라 선교사의 사명', '237개국 서밋을 찾았다' 주제로 2강의 메시지를 전했다. 대회 마지막 순서로 김동권 목사(전도협회 상임위원장)의 축도로 대회를 마쳤다.

서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필박받는 선교사님들을 언약의 손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환영사를 전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3명의 선교사 파송과 8명의 선교사 위촉식이 진행되었다. 하와이 김세희선교사, 인도네시아 김종욱 목사, 필리핀 문철 목사가 파송을 받았으며, 탄자니아 조명현 목사, 필리핀 조찬석 목사, 미얀마 kam khan Hau 목사, 러시아 Duishenov Aibek 목사, 우즈베키스탄 Tsouy Sergey 목사, 키르기즈스탄 Ushurov Arken 목사 아시아 K.S.B 목사, H.C.M 목사 등 8명을 선교사로 위촉했다.

또 파송선교사를 돕는 시스템인 6개 나라 담당자를 임명했다. 나이지리아 정근모 목사, 스리랑카 김찬우 목사, 스위스 박광채 목사, 에티오피아 최만순 목사, 인도 신현관 목사, 체코 이양희 목사를 임명했다. 이날 대회에서 류 목사는 '237개 치유하라 선교사의 사명', '237개국 서밋을 찾았다' 주제로 2강의 메시지를 전했다. 대회 마지막 순서로 김동권 목사(전도협회 상임위원장)의 축도로 대회를 마쳤다.

자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공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번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이사: 표종진 목사 이사장: 허정범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본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 jntvcpj@naver.com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GD FC
GOD DESIGN FELLOWSHIP CHURCH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신(편)입생 모집

학 과	수업연한	자 격
통신과정	8학기	세례, 고졸이상
목회학과	6학기	세례, 학력제한없음
신학과	8학기	세례, 고졸이상
연구 원	4학기	신학교 졸업자
신 대 원	6학기	일반대학 졸업자
학 술 원	6학기	석사학위소지자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인준
- (미)Cumberland University 학점교류
- 과정수료 후 고시를 통해 웨신총회에서 목사안수 받을 수 있습니다.
- 여목제도 있음.
- 입학전형
매년 2월, 5월, 7월, 9월, 11월
- 종업식 : 매년 2월 9일
- 문의 : 010-2802-3928
070-7581-0012

학교 위치 : 천안초고등학교 부근

세계로신학학술원
http://www.garpc.net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표어 : 좋은만남 행복만성도(신 33:29절)



강사 박수영 목사

- 한국어목성장학술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 행복샘전인치유센터 원장
- 동무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욱 : 심장병으로 숨어지고 귀어하는 교통에서 고침받은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마티스관절 병행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중 고침받은
- ☆ 남영수 : 제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은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은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은

송 에 배 시 간 안 내 송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구광역시 동구 요목로 36-5(요목동) 3층 우)41232
☎ 053-752-8238 010-8537-82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패밀리처치

표어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사 43:19)



視務牧師 서명명 同事牧師 지복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상85길 42 원영마을부영아파트 116동 206호
H : P010-8268-0091, 010-3710-9119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목사 곽완군

주일에배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주일 2부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010-4320-1507

사)한총연 초대총재 허영무 목사 취임감사에배 드려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발족된 한총연!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대표회장 박동호 목사, 이하-한총연)는 지난 2월 24일(토) 오전 11시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서능로 190, 성민교회(담임목사 허영무) 대성전에서 사)한총연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는 허영무 목사를 총재로 추대하고, 총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박종철 목사(예장합동전통총회 총무)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고 한총연 서기 이상원 목사가 기도, 임석영 목사(예장합동전통총회 부총회장)가 성경봉독(고전 15:58)하고,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는 총재 허영무 목사에게 한총연 총재 취임패를 증정했으며, 성민교회 성도들의 축하와 꽃다발이 이어졌다.

이날 한총연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는 본문말씀을 중심으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대표회장은 오늘 뜻 깊은 날이라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총재로 취임한 허영무 목사를 본회 총재로 모시게 된 것은 오직 주님의 뜻이었다면서 한총연 임원들과 많은 내빈들, 성민교회 성도들과 함께 축하의 박수로 환영했다.

이어 박 대표회장은 "오늘날 한국교회



를 진단해 볼 때 대한민국이 보릿고개를 겪어왔던 세대가 허리를 동여매고 땅을 갈아엎고 있는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총재로 취임한 허영무 목사를 본회 총재로 모시게 된 것은 오직 주님의 뜻이었다면서 한총연 임원들과 많은 내빈들, 성민교회 성도들과 함께 축하의 박수로 환영했다.

는 교회, 세상을 따라가는 인본주의의 사상으로 전락되었다며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때는 참고 견디기엔 너무도 힘들었던 네거티브로 인해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를 극복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기도한 가운데 응답을 받았으며, 다시 한 번 힘을 얻고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를 뜻을 같이한 동역자들과 함께 발기하게 되었고, 마침내 허영무 목사를 총재



로 추대하고 취임사를 하게 되었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드리다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박 대표회장은 본지와와의 인터뷰를 통해 본회 운영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명감당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총연은 하나님 앞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깨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비록 미약하

지만 힘을 다해 신본주의, 보수주의, 말씀 중심 주의로 초대교회 신앙이 회복되는데 있다면서 오늘의 한총연 출범의 계기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한총연 초대총재 허영무 목사는 중차대한 직책을 맡기에는 9순의 고령의 나이에 감당하기에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귀한 사명임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취임사를 가졌다.

이어 한총연 개혁위원회 위원장 하식 목사의 축사와 박종철 목사가 광고를, 한총연 상임고문 남성운 목사의 축도가 있는 후 기념촬영에 이어 감창를 목사(하나님이다)가 인도(신교회)의 오찬기도로 시작된 만찬은 덕담을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었다.

1953- 한국전쟁 중 육군에 입대, 48개월 군복무(국가유공자), 1970- 경기도 광주군 풍산리에 현 성민교회의 전신인(풍산성결교회) 개척을 시작으로 국내와 해외에 13개 교회개척, 1985-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전통총회(70차) 부총회장, 연합노회장 피선, 1988-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전통총회(73차총회)총회장 피선 이후 수차례 총회장 역임, 2002.5-현 성민교회 성전 신축 후 헌당, 2013-2014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제4대, 5대 총재 역임, 2018.2-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총재 추대, 현재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총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전통총회 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노회장, 현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민교회 담임목사이다.

『인물탐방』 한총연,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

목회자의 영성회복, 교육, 자질향상, 한국(교계)교회의 신뢰회복과 WCC,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을 저지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이하-한총연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는 JTNTV(지저스타임즈)와의 인터뷰를 갖고 한총연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날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며, 도리어 걱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모든 사태는 우리 목회자들과 한국교계(교회)의 다수의 지도자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각각의 교회를 지도하는 단체들이 특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회심하여 새롭게 거듭난 자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합니다. 회심하기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든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후에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라면 모습은 달라져야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제자인 줄 알리라"(요13:35)고 말씀하

셨듯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하고, 용납하며, 돌보아 주는 등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모범된 모습(행2:44-47)을 보여야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음해하고 모함하는 등 세상(이방)사람들조차도 잘하지 않는 일들을 목회자(지도자)들이 자행하는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주님의제자로서 말한 양떼를 돌보는 목자라면 더욱 모범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며, 양의 털을 쓴 자들이 판을 치는 것들을 보게 되며, 심지어는 이



와 같은 사실들을 알면서도 모른척하거나, 동조하는 세력들을 볼 때 저들이 과연 하나님의 종들이인지 의문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는 한총연의 규칙이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목회자 영성회복을 위한 세미나(포럼)등을 개최하여... 영성회복 하는데 힘을 것이며... 2) 목회자의 교육(리더십)등을 통하여, 목회자의 자질향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3) 실추되어진 한국교회(교계)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4) 신학적으로 왜곡되어 변질된 사상과 이념을 정통보수 신학으로 바로 세우는데 앞장 설 것이며, 5) 저희 한총연에서는 신본주의에서 벗어나 진리를 왜곡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철저히 분별하여 설 자리가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이나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그날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 갈 것입니다.

한편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의 인터뷰 중 한총연 고문 남성운 목사, 서기 이상원 목사, 총무 고광원 목사 등이 자리를 같이 했으며 이구동성으로 대표회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부끄럼 없는 보수교단 한총연의 규칙시행을 따르며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분골쇄신 할 것이라고 했다.

한총연 초대총재 허영무 목사 약

취재부 김정옥 기자

피종진목사 3월 국내·외성회일정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Godless3333@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부총회
국내·외성회
T:02)3411-9191
F:02)401-7770
F:02)3411-9111

2(금) 오전	제211차 해외성회(21st Overseas Assembly)
장소: LA 로렐스호텔 ☎(213)215-6021	주최: 남가주한국교회(회장) 생 신 목사
3(토) 오후	미국(U.S.A) 남가주 한인 8 회소배영 영락교회(회장) 장소: LA 주남영락교회(신승훈 목사) ☎(213)749-4500
4(주) 오후	미국(U.S.A) 남가주 한인 3.1월 기념행사(회장) 장소: LA 미주한국교회(임승진 목사) ☎(213)381-2202
8(목)	미국(U.S.A) 아틀란타 아가페교회(강찬구 목사) ☎(678)642-7525
8(목)~11(주)	미국(U.S.A) 아틀란타 예수사랑교회(문길원 목사) ☎(770)403-6898
11(주) 오전	미국(U.S.A) 아틀란타 영락교회(전재장 목사) ☎(404)421-0556
12(월)~13(화)	미국(U.S.A) U.K.P.C 동남부노회 연합사명자부흥회(대회장 박성운 목사) ☎(404)918-6764
13(화) 오전	미국(U.S.A) 아틀란타 화요연합기도성회 ☎(404)625-1212
19(일) 오전	주목회자(대표회장 김재용 목사) ☎ 010-5257-0374
19(일)~21(수)	군산 예스결기도원(원장 김성선 목사) ☎ 010-8924-4927
22(목) 저녁	성남 영광교회(전목원 목사) ☎ 010-2445-1691
24(일) 오전	광명 예수영광교회(주중순 목사) ☎ 010-5257-0374
26(일) 오전	여의도순복음교회(이원영 목사) ☎(03)1772-9113
26(일)~28(수)	주최: 예수능력부흥사회의(김미경 목사)
30(금)~4.1(주)	대전 주남교회(이금숙 목사) ☎ 010-7511-7547
	서울 서도교회(김희준 목사) ☎ 010-8633-0190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총재 허영무 목사 취임 환영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스 8:13下)



총재 허영무 목사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

한총연은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는 건전한 신본주의 보수적인 신앙을 지향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보수를 추구하는 교인들이 모여 구성되어진 연합단체로서,

- 1) 목회자 영성회복을 위한 세미나(포럼)등을 개최하여 영성회복하는데 힘을 쓸 것이며,
- 2) 목회자의 교육(리더십)등을 통하여, 목회자의 자질 향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 3) 실추되어진 한국교회(교계)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 4) 신학적으로 왜곡되어 변질된 사상과 이념을 정통보수 신학으로 바로 세우는데 앞장 설 것이며,
- 5) 저희 한총연에서는 신본주의에서 벗어나 진리를 왜곡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철저히 분별하여설 자리가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앞이나 사람앞이나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그날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 갈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 7번길 4, (성우 B.D) 701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http://www.kcccd.org) www.한총연.org www.한총연.kr e-mail : kcd@kcccd.org Tel:1588-0342

■ 靑松 건강칼럼 (623) 처칠과 덩케르크(Dunkirk) 정신

다키스트 아워(Darkest Hour)

靑松 박명운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윈스턴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성공도 실패도 영원하지 않다. 중요한 건 굴복하지 않는 용기다. 우리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승리가 없으면 생존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명언이다.

설 명절 연휴 첫날(2월 15일) 오전에 아내와 함께 서울 신촌 '필름포럼' 소극장에서 <다키스트 아워(Darkest Hour)>를 관람했다.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당시 히틀러(Adolf Hitler, 1889-1945)의 위장평화 공세 속에서도 영국을 지킨 처칠(Winston Churchill, 1874-1965) 총리의 일화를 다룬 영화다. '암흑의 시간(Darkest Hour)'은 처칠 총리가 1940년 6월 18일 연설에서 나치 독일의 프랑스 침공(侵略)이 끝난 후의 처참한 상황을 가리켜 한 말이다.

제2차 세계대전(World War II)은 1939년 9월 1일에 일어나 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이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대독 선전포고에서 발발하여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종결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5천만 인명 피해를 낳은 전쟁이다. 전쟁은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등 3국을 근간으로 한 추축국(樞軸國, Axis Powers) 진영과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聯合國, Allied Powers) 진영의 대립으로 진행되었다.

아돌프 히틀러는 1889년 독일 국경부근에 있는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 브라우나우에서 세관원의 아들로 태어났다. 1903년 13세에 아버지를 잃자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실업학교를 퇴학한 후 미술대학에 진학했지만 재능을 인정받지 못했다. 18세 때 어머니도 앓았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물려받은 유산과 그림엽서 등을 판매하면서 생활하였다. 도

서관에서 독학으로 지식을 습득하였으며, 이때 인종이론과 반(反)유대주의를 익혔고 히틀러의 정치사상이 형성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이 발발하자 독일에 대한 애국심으로 열광하였던 히틀러는 지원병으로 입대하고 무공을 세워 훈장을 받았다. 독일이 패전한 후 1919년 9월에 독일노동자당(후에 나치스)이라는 반유대주의적인 정당에 가입하였다. 1930년 총선거에서 나치스는 사회민주당에 이어 제2당이 되었으나 연립내각에 참여할 것을 거절하였다. 히틀러는 1932년 대통령선거에서 한텐부르크에게 패하였다.

대통령 한텐부르크는 정계와 경제계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1933년 1월 히틀러를 수상으로 임명하였다. 히틀러는 보수파와 군부의 지원을 얻어 반대파를 탄압하고 1933년 7월 일당독재(一黨獨裁)체제를 확립하였다. 1934년 8월 대통령이 죽자 대통령의 지위를 겸하여, '총통 겸 수상'이라 칭하고 명실상부한 독일의 독재자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는 1945년 패전에 직면하자 4월 30일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 애인 에바 브라운과 결혼식을 올리고 다음날 베를린이 함락되지 직전에 자살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 윈스턴 처칠은 제7대 말보로 공작 존 스펜서 처칠의 삼남 헨리 스펜서 처칠과 미국의 부호 레너드 제롤의 딸 제니 케를 사이에서 태어났다. 처칠은 학교에서 말쑥꾸러기 낙제생이었다. 해로우 학교를 졸업하고 삼수(三修) 끝에 1893년 샌드허스트 사관학교에 입학했지만, 졸업은 150명 중 8등을 했다. 1900년 보수당 후보로 출마하여 25세에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보수당의 보호관세정책에 반대하여 1904년 자유당으로 옮겼으며, 1906년부터 자유당 내각의 통상장관, 식민장관, 해군장관 등을 역임하며 승승장구(乘勝長驅)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1915년 해군장관직에서 물러났지만, 1917년 군수장관으로 입각하여 육군장관 겸 공군장관, 식민장관 등을 역임했다. 소련과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과 노동운동에 대한 의구심을 품은 처칠은 분열로 지리멸렬(支離滅裂)해진 자유당을 떠나 보수당으로 복귀했다.

처칠은 아마추어 수준을 뛰어넘는 화가(畫家)이기도 했으며, 신문에 에세이와 시사평론을 많이 기고했다. 또한 소설, 전기, 회고록, 역사서 등을 집필한 정력적인 작가, 저술가였다. 그는 1953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처칠은 1945년 총선 패배 뒤 1951년 다시 총리에 취임하고 경(卿)의 칭호를 받았지만, 1955년 당수 자리를 이든(Anthony Eden, 1897-1977)에게 물려주고 하원의원으로 머무르다가 1964년에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처칠은 1965년 1월 24일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2002년 BBC가 영국인 1백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위대한 영국인 100명' 가운데 처칠이 1위를 차지했다.

<다키스트 아워>는 영국 해군 장관 출신의 정치인 윈스턴 처칠이 전사(戰時) 내각의 총리로 임명되는 1940년 5월 10일부터 덩케르크 작전(다이나모 작전)을 지휘한 직후인 5월 28일까지 19 일간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작전 지휘와 관련된 반대 진영과의 갈등, 신념을 지키기 위해 끝없이 이어지는 고뇌가 펼쳐져 영화를 보는 동안 긴장감을 놓칠 수 없게 만든다.

2차 세계대전 중, 영국군(軍)과 프랑스군은 독일군에게 밀려 프랑스 해안가 덩케르크(Dunkirk)에 고립된다. 다이나모 작전(Operation Dynamo)은 1940년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행해진 작전 중 하나로서 덩케르크 전투에서 벨기에군과 영국 왕정군 및 프랑스군 등 총 33만8천여 명을 구출할 목적으로 실행된 작전이다.

영국 해군 베틀람 펠레이 중장이 작전을 계획하여, 윈스턴 처칠 수상에게 다이나모 롬(다이 나모)은 도버성(Dover castle) 지하

의 해군지휘소의 방 이름)에서 이 작전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 것에서 '작전'의 명칭이 유래되었다. 5월 26일부터 9일 동안 860척의 선박이 동원되어 총 338,226명의 병사(영국군 192,226명, 프랑스군 139,000명)를 덩케르크에서 구출하였다.

덩케르크의 작은 배들(Little Ships of Dunkirk)에는 여러 종류의 어선, 유람선, 화물선, 구명정 등 민간선박들이 긴급히 징발되어 병사들을 해안에서 바다에서 대기 중인 대형 선박(구축함)으로 운반했다. 이 작은 배들의 '기적'은 영국 국민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 작전은 성공했지만, 영국군이 프랑스에 반입한 화포(火砲) 등 중장비 및 차량은 모두 버리고 철수했다.

다이나모 작전이 완료되기 전, 처칠은 작전의 전망에 비관적이어서 하원에서 "무겁고 엄숙한 이야기를 전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 후 처칠은 작전의 성과를 '기적'이라고 했으며, 언론도 '대실패가 대성공이 되었다'고 소개했다. 영화 속에 묘사된 영국 국민의 단호한 항전(抗戰)의지가 감동스러웠다. 영국 국민이 단결하여 역경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사용된 '덩케르크 정신'이란 용어를 지금도 영국인에게서 들을 수 있다. 우리도 단결과 극복 의지를 다지는 '덩케르크 정신'을 배워야 한다.

영화를 관람하면서 감동스러운 장면은 당시 영국 내각과 정치권에서 히틀러와의 평화 협상을 종용하는 정치인들에게 처칠은 "호랑이 입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어떻게 호랑이와 협상을 한단 말인가!(You cannot reason with a tiger when your head is in its mouth!)"라고 일갈(一喝)한 장면과 대국민 라디오 연설에서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We shall never surrender!)"는 결연한 태도였다.

현재 우리나라 좌파정권이 핵(核)으로 自由大韓民國을 위협하는 북한의 독재정권과 협상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처지이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2월 14일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자신의 할아버지(김일성)와 아버지(김정일)가 실패한 한반도 적화통일(赤化統一)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의 핵 아욕을 체제 보호 수단으로만

보는 것은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키스트 아워> 영화에서 필자 개인적으로는 처칠이 편지를 쓸 때 편지 내용을 말하면 여비서가 수동(手動) 타자기(typewriter)로 찍는 장면이 필자가 50여년 전 UNICEF에 근무할 당시 주한 UNICEF 대표였던 영국인(Mr. Alan E. McBain)이 한국인 여비사에게 편지 내용을 말하면 속기(速記)로 받아 타자기로 찍었던 것이 생각났다. 필자는 1965년 1월 UN직원(official of the United Nations)으로 임용되어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에서 25년간 근무했다. 1960년대 당시 사용한 타자기는 손으로 조작하는 수동이였으며, 후에 전기를 사용하는 자동(電動) 타자기,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했다. 당시 UNICEF 사무실에서는 미국 왕립컴퓨터사 제품인 'Wang computer'를 사용했다.

필자는 1961년 1월 대학생 영어서클인 'Pine Tree Club(PTC)'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클럽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영어로 회의를 진행하고, 영자 신문(Weekly The Star)을 발행하였기에 종로 YMCA '타자(타이핑)학원'에서 영문타이핑(typing)을 배웠다. PTC 창립60주년기념행사를 오는 11월 3일 롯데호텔에서 거행한다.

姜石熙 前 미국 Irvine 시장(서울PTC), 千英宇 前 영국대사(부산PTC), 李富謙 행정안전부장관(광주PTC) 등 그동안 1만 명이 넘는 'PTCian'들이 배출되어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 <다키스트 아워> 상영극장에서 1960년대 경북대 재학 중 대구PTC에서 활동하였고 현재 칼럼니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丁海均 前 현대그룹 현대철탄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만나 정담을 나누었다.

<다키스트 아워>는 오는 3월 열리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작품상·촬영상·남우주연상·미술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영화다. 전 세계에서 흥행에 성공한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상영관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남남갈등으로 국민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처칠과 같은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정치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 영화를 대통령을 위시하여 여야정치인들이 꼭 관람할 것을 권하고 싶다.

3박자 건강칼럼 - 72 -

암과 여성

"암 예방은 자연미의 추구로"

황성주 박사
사랑의 클리닉 원장

이론적으로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암에 잘 걸리지 않는다. 정상적인 삶의 궤도를 이탈할 때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러한 비정상성은 암뿐 아니라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현대 여성이 가장 경계해야 할 암이 유방암과 대장암과 폐암이다.

유방암은 어머니와 두 딸이 동시에 걸릴 수도 있는 확률을 가진 희귀한 질병이다. 그 만큼 모녀간, 자매간에 가족 집적성이 높은 암이다. 같은 유전적 요인을 가졌다는 점 이외에도 식생활 등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데서 올 수도 있다.

유방암의 위험요인으로 가족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가족 중 유방암이 있는 사람은 불만에 떨지 말고 정기적인 암 검진은 물론 총체적인 건강 증진에 최고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으나 역시 자연의 순리에 적응하지 않은 왜곡된 사회환경과 인위적인 '자연성'이 신체 균형을 깨뜨리고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역으로 인체의 정교함이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할까. 아무튼 건강하게 살려면 인생의 행로를 자연의 흐름에 일치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유방암과 대장암은 발병요인에 있어서 비슷한 범이 많다. 한마디로 고지방식과 저섬유질식이 그 원인이다. 저지방 섭취량이 30~40%인 구미의 여성에게 유방암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때는 지방의 섭취가 40%를 초과할 정도로 부자연스러운 식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그 부작용과 후유증을 짐작할만하다.

기계에 기름을 쳐도 적당한 양이어야 한다. 기름이 부족해도 기계가 돌아가지 않지만 너무 많으면 기계가 헛물게 되는 법이다. 기름 속에 음식을 말아 먹는 것 같은 식생활이 건강을 지켜 줄리 만무하다.

끝마무리 영양소인 섬유질이 충분치 못한 것도 조화를 상실한 식생활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섬유질은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켜 숙변을 제거시키는 작용 이외에도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정상화시키는 고도의 조절기능이 있다.

암 예방뿐 아니라 각종 성인병의 예방에 섬유질은 나날이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통밀빵 대신 백밀빵을 먹는 일, 고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채소와 과일 섭취, 해조류의 섭취부족 등 편향된 식생활이 결국 섬유질의 부족을 야기한 것이다.

폐암의 경우 흡연이 주원인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궁암의 경우 조기 결혼, 조기 성생활, 성병감염 등 비정상적 성생활의 소산이며, 위암 역시 고염식, 어패류 등의 염장식품, 식품 첨가물 등 불건전한 식생활에 기인하는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모든 암은 스스로의 탐욕에 이끌려 자연의 순리를 위반한 대가라 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지저스타임즈 광고와 구독료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애독자 제위께

2018년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도

부흥과 발전,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신문은 애독자님들의 구독료 및 선교비, 광고료 및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신문이 벌써 창간 12년이 넘었습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자유로운 납부제도를 우선하고 있으며,

이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강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허창범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 후원 계좌 하나 : 758-910292-36807 정기남
 농협 : 455030-56-005509 정기남
 우체국 : 310029-02-152769 정기남

■ 존경하는 독자님들의 구독료로 언론방송신문을 도와주십시오. 1년 48,000원

지저스타임즈
THE Jesus Times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TEL 032)672-3031(FAX겸용) H.P 010)5468-6574
 E-mail : jtpress@hanmail.net / jtntvcjp@naver.com



연세총회신학·신대원 신학생 신·편입생 모집

수시모집(주/야)

※ 과정소개

● 신학부(신학대학과정)

교육기간	2년(8학기):1년(4학기), 방학없음
출석일	(주)매주 1회(목), (야)매주 1회(목)
대상	평신도 지도자 및 전도사, 목사후보생
자격	세계교인 이상, 학력제한 없음
특전	졸업 후 신대원 목회연구과에 입학가능함

● 신대원(목회학 석사과정)

교육기간	1년(반학기) (6학기), 방학없음
출석일	(주)매주 1회(화), (야)매주 1회(목)
대상	목사 및 선교사 후보생
자격	신학부 졸업자, 일반대학 4년 졸업자
특전	졸업 후 강도사 고시후 목사 안수 신대원 신학석사 입학 가능함

● 신대원(신학 석사과정)

교육기간	1년(4학기), 방학없음
출석일	(주)매주 1회(화), (야)매주 1회(목)
대상	목회자 연장교육, 교수지망생
자격	신대원 목회학 석사 소지자

● 개강일 2018년 3월 8일(목) 오전10시

※ 연세총신·신대원의 특징

- ① 본 신학원은 사단법인 세계기독교 연합(미국 L.A.소재)에 가입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세계연합총회 산하의 목사후보생 양성기관입니다.
- ② 본 신학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세계연합총회에 소속된 직영 신학원으로 보수 개혁신학을 토대로 합니다.
- ③ 본 신학원 운영은 총회 자원과 총회 산하 교회와 개인의 후원금과 신학생들의 선교 헌금으로 하며 학비는 무료입니다.
- ④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교회지도자 전문반(평생교육원)과 연계교육하여 총장령의 수료증을 받습니다.
- ⑤ 본 신학부 학생들은 교회 교역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신대원 학생들은 본 교회에서 강도사 고시후 본 후 목사로 안수하여 목회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 ⑥ 사모들은 학력과 관계없이 신대원에 입학 가능함.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 119(진영빌딩 210호)
 인천시청 후문 맞은편, 경인일보 건물, 인천시청역 3번출구 20M

문의 | 070-7518-0651 · 010-3641-0685

북 김영철 방남 접한 천안함 유족, “이게 나라냐?” 강력한 분노 표출

북한 김영철 방남이 예정되자 천안함 유족들이 분노하고 나섰다. 북한에 의해 폭침되어 많은 우리 국군이 전사했고, 김영철은 그 천안함 폭침을 배후에서 조종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그런 범죄자가 VIP 대우를 받으며 평창올림픽에 초청됐다는 소식에 알려지자 천안함 유족들은 조금 말할 수 없는 허탈함에 빠져 있다고 한다.

당시 폭침으로 목숨을 잃은 고 이상희 하사 아버지인 이성우 씨는 한 방송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천안 함에 대한 아픔이나 그런 것은 전혀 돌보고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거



조, 이게 나리입니까?"라며 현 정
부의 태도에 강력한 분노를 표했
고, 이어 "위안부는 사과 하라면서
왜 이렇게 목숨까지 죽인, 목숨까

지 희생시킨 북한한테 사과하란 말 못합니까"라며 목소릴 높였다.

김영철의 방남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아의 집회를 갖고 김영철 방남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각 보수단체들 역시 김영철 방남을 앞두고 대규모 반대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김여정에 이어 김영철 까지. 현 정부의 북한 인사 모시기에는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 정치권에서는 김영철 방남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시니어타임즈US

전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현직 신부
선교지서 여성 자매 수차례 강간 시도

지난 탄핵 정국 당시, 국정원 해체, 박근혜 하야 등을 외쳐온 정의구현사제단



소속으로 밝혀져 더 충격, 이와 관련 천주교 수원교구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한 모 신부가 상당한 부분을 인정, 그를 정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힘 없는 약자, 그것도 선교지에서 추잡한 성폭력을 행한 것으로 보인 한 모 신부는 놀랄 것도 정교회원사제단 소속이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교회원사제단은 한국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으며 매 사회 운동가

다 앞장서는 단체로,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박근혜 하야', '국정원 해체'를 외치며 큰 역할을 한 조직이다. 뉴스를 접한 LA 동포는 본지로 연락을 취해 의견을 전하면서, "정의 구현하겠다는 천주교 신부들이, 힘 없는 여성을 참침이 강간하려 했다. 이게 정의냐?"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제공 시니어타임즈

곽상도 의원 “이윤택 청와대 출입 자료 내놔라” 청(靑)의 대답은?

자유한국당 광산도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동창으로 알려진 이운택의 청와대 출입 자료를 요구하고 했던 사실을 밝혔다. 광 의원은 “대통령이 성추행범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된다”면서 청와대 측에 이운택씨 출입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곽 의원은 "청와대가 줄 수 없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곽

의원은 “지금 청와대에 엮기적인 여성비하 발언을 했던 탁현민 행정관이 있다”면서 이운택 씨의 청와대 출입 사실을 밝혀달라”며 거듭 강조했다. 과 의원의 요청의 근거로 전문가들은 문제인 대통령과 고교 동창으로 알려진 친구, 이운택 씨가 청와대를 출입했다면 현재 이슈의 중심에 있는 만큼 국민들도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을 던지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US]



성도간 법정싸움-소송 대신 차라리 손해를 보라!

최근에 들어와 기독교계의 단체나 기관, 교회나 성도들 간의 법정 싸움들로 인해 부끄럽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 성경은 명백히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서 6장에서 말하는 소송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세상을 판단할 위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판단 받을 자 앞에서 스스로 판단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2절).

둘째, 이 때문에 송사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허물이므로 세상 법정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지는 것이다 (7절) 그래서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낫



다는 것이 바울의 최종 권면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배경에는 교회와 성도의 영광스런 위치에 대한 생각이 배경에 자리잡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지혜를 나누어 가진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지식이 항상 뛰어난 것
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지혜와 덕성
에서는 항상 뛰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의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에 고민하는 모습 없이 너무 쉽게
소송을 해 버린다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겠는가? 우리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 주지 않
는데 어떻게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쉽게 믿을 수 있고 볼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
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고민하고는 날에 하나씩에 영광을
들리게 하라” (벧전 2:12) 모든 성
도는 한 가족이므로 손해를 볼지언
정 차라리 소송을 하지 말라는 성
경의 도전을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덕성을 훨씬 뛰어넘
는 높은 도덕성은 전도적 메시지를
가진다.

남가주한인목사회 법상식 포럼 마쳐

이민법, 형사법, 영주권, 시민권, 비자변경 등 다뤄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심신 목사)는 지난 20일(화) 오후 7시 오직예수신교교회에서 법상식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폰스변호사그룹(PONCE LAW GROUP)에 소속된 로저 폰스 변호사, 폴절 변호사, 제니퍼 박 변호사 및 박재홍 변호사 그룹의 대표 박재홍 변호사(통역) 등이 이민법, 형사법, 영주권, 시민권, 비자결정 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로저 폰스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에서 현재 영구권자라도 형사유죄판결 경험에 있는 사람에게는 시민권을 받을 때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의 기복이 있는 사람은 미국에서 집과 자동차 등을 구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라서,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형사법 혹은 이민법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니퍼 변호사는 “가정폭력, 음주운전, 파산 문제와 이민법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를 기억하고 평소 조심하는



것이 좋다. 행여 이민국직원이 집이나 일터를 전혀 예고도 없이 방문했을 경우에는 묵비권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거짓말은 절대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풀질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에서 형사법과 관련 해리로 추방되는 경우 아무 이유도 필요치 않다. 한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한인들이 이민법, 형사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주한인교회들마다 이들을 보호해주고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 응답시간에는 미주동포들이 평소 궁금하게 여겼던 다양한 이민법과 형사법 문제를 변호사에게 직접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샘신씨는 “한인목사와 주관으로 처음 실시한 법상식 포럼은 미주동포와 성도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며 “다음 기회엔 의화상식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크리스천비전 이정현 기자

예장진리총회 대한노회

노회장	서기	회의록서기	회 계
			
장한국 목사 (주서왕교회)	박민규 목사 (천성교회)	김은임 목사 (감사교회)	김정미 목사 (새여루살렘교회)

노회장 : 장한국 목사
010-4436-7060

서 기 : 박민규 목사
010-9621-9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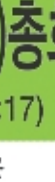
☎ (031)424-7612



진리총회(대한노회)

사무실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로10, 7층 대림프라자 고호5 (구.내손동)
 노회장 장한국 목사 H · P 010-4436-7060, 서기 010-9621-9627
 ☎ (031)424-7612 (JTNTV, <http://jtntv.kr> 지저스타임즈)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총회 표어 : 새해 새 마음 새 목회 (고후 5:1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 교단은 주 안에서 뜻을 같이할 교회와 기관, 교단 가입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총 회 장	중경총회장	중경총회 장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윤석진 박사 (원복교회)	서동기 목사 (서울소망교회)		
제1부총회장	제2부총회장	서기	부서기	
				
김영국 목사 (경인교회)	김영국 목사 (양귀중앙교회)	임성국 목사 (원복북기교회)	주지장 목사 (사천대국교회)	
회의록서기	회의록부서기	회계	투회계	총무
				
서지석 목사 (봉성교회)	김상태 목사 (반석교회)	송인성 강도 (양산교회)	이정순 강도 (천복교회)	조영만 목사 (사촌교회)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이규필 목사

총회 서록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 (가산동 동천교회)
☎ H.P 010-7474-3173, 02854-1326, FAX 496-018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표어 : 복음의 진리로 개척 · 변화 · 성장하는 총회(고후 5:17)

웨신총회 임원

총회장  허창범목사	직전총회장  이영풍 목사
---	--

제1부총회장  오상범 목사	제2부총회장  신언강 목사 (대의사무총장)	제3부총회장  김영환 목사	총무  김정욱 목사
---	--	---	---

서기  맥경관 목사	회의록서기  임홍신 목사	부회의록서기  조명신 목사	회계  권순옥 목사	부회계  최대일 목사
---	--	---	---	--



웨신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21세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172, (302호)
 ☎ (02)835-2606-7 Fax (02)835-2068 <http://ws21.org>
 목사안수 및 교단 가입문의 H · P 010-8602-3009

초대교회로 돌아가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영성으로 재림을 감당하자!

제8차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영성 아카데미



초대교회로 돌아가
영성으로 감당하자!

일 시 : 3월 20일, 22일, 27일, 29일
(매일 오후 6:30 - 9:50)

장 소 : 서울 구로구 개봉로1나길1
(1호선 개봉역 남부광장 04번 버스승차-원천로 하차 후문 비포장)

과 목 : 사도론, 믿음론, 사도적 전도의 실제
소아시아 일곱교회 비교연구,
칭의와 성화의 관계, 상담학실제,
요한계시록 요약

강 사 : 홍황표목사, 홍성익목사, 임요한목사,
박경혜교수, 임용환선교사, 이준우선교사,
김동현선교사

특 헤 : 참석하시는 분들 학점 이수
나그네 만찬장식 제공

참가비 : 1일 1만원 (교재 및 나그네 장식 식사제공)

주 최 : 사도영성심학원

문 의 : 010-7585-1955(학장)



학장·홍황표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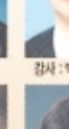
강사·홍성익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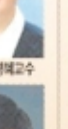
강사·임요한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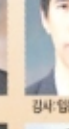
강사·박경혜교수



강사·임용환목사



강사·이준우선교사



강사·김동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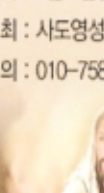
강사·김동현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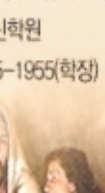
강사·이준우선교사



강사·김동현선교사



사도영성 세미나



초대교회 사도 영성 세미나



초대교회 사도 영성 세미나



초대교회 사도 영성 세미나

요한계시록 4장(35)

네 생물 안에 있는 일곱 영?

(자녀호에 이어)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은 생물입니다. 송아지가 자라서 소가 되고 소는 힘 있게 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 힘으로, 내 육체로 일하는 것은 사람의 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만 열매 맺고, 하나님의 의로만 나타나는 모든 것은 일곱 영이 송아지 같은 생물로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은 생물입니다. 네 생물 안에 있는 일곱 영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 주나요? 우리를 마 17:1 열세 후 따로 떨어진 높은 산으로 인도하여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 주십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주실 하늘나라에 예비된 영광, 즉 첫째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보여주신 그 영광이 내 것 되도록 이루는 것이 일곱 영인데 셋째 생물이 그 일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영광·존귀 등을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이기게 하는 것이 셋째 생물의 역사입니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생물입니다. 환란 날에 순교 현장에서 직접 순교가 이루어지도록 수행하는 것이 넷째 생물입니다.

8절 네 생물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여섯 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지여!” 하더라.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았이여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네 생물이 앞뒤로 눈이 가득하고 각각 여섯 개의 날개 안쪽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합니다. 네 생물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 눈들이 가득할까요? 네 생물이 살릴 대상자들, 순교시킴 대상자들의 영안을 열어주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네 생물의 눈입니다.

네 생물 앞에 눈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앞을 보게 하는 눈입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보이나요? 하늘나라가 보이고,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내게 주시려는 것이 보입니다. 그 하늘의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이 내 몫으로 예비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네 생물 앞에 있는 눈으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복이 히브리서에 나오지만 그 복이 어떤 복인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을 깨닫지 못하면 이 장자의 복을 알 수 없습니다. 계시록에서 천년 왕국을 깨달아만 장자의 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생물 앞에 있는 눈으로 장자의 복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준 대로 소망하게 되면 거침없이 그 소망이 융수처럼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네 생물 뒤에 있는 눈은 우리의 흔적, 업적, 발자취를 보게 합니다. 지금까지 내게 간직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그것을 뜻대로 삼아 달려왔던 지난날들을 네 생물 뒤의 눈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업적이 있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받아 온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예장진리총회 총회장

네 생물의 날개 안에 눈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안을 보게 하는 눈입니다. 우리 안에는 영이 있고 영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생물의 날개 안에 있는 눈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갇힌 아이' 같이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영이 되어 내 영을 계속 살리고, 부요케 하고 있구나! 그것을 통해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구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는구나! 결국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고 있구나!' 하며 보게 하는 눈입니다.

또 네 생물의 날개 안에 있는 눈으로 성자 하나님이 열기세막 제사장 직으로서 구원하신 일도 깨닫게 하고 오늘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 속의 아들의 영이 계속해서 길러져가고 온전해져가고 있는 것을 깨닫고 보게 하는 것입니다.

네 생물 주위(밖)에 있는 눈으로 나의 밖을 보게 합니다. 내 주위의 모든 만물을 보게 하는데 여기에는 귀신들과 마귀도 포함됩니다. 모든 만물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요 나의 구원에 이용되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네 생물의 여섯 날개는 사 6:2에 스랍의 여섯 날개를 가리킵니다.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얼굴은 영광을 의미합니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영광을 차단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두 날개로 발을 가리는 것은 나의 발로 걸어가고 살아온 것이 전부 가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로 걸어온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두 날개로 날아가는 것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고, 또 감사한 대로 열매 맺어 찬송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와 찬송이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4장에서는 네 생물을 소개하고 있고, 6장의 네 생물 역사는 환란 날에 적용되는 구체적 사건을 계시한 것입니다. 6장에 가서 네 생물이 직접 등장해서 “이리 오라!”하고 천둥 같은 소리를 발합니다. 그러면 말 탄 자들이 등장하면서 그에 따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 생물의 역사로 우리의 짐승 같은 요소를 잡아먹는 일이 나타납니다. 두 증인에 의해서 완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첫 면류관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단계입니다. 둘째 생물은 거지 선지자의 붉은 말 탄자를 하나님의 의로 이기게 해서 외의 면류관을 받게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넘겨 지심과 일으켜 지심

로마서 4:25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일으켜지셨습니다(직역성경). 야슈아 마쉬아흐(Yahshua Mashiach)께서는 죄의 값은 사망이요, 피로한 사람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여 피와 물을 온전히 흘리신 후에 땅의 중심부에 내려가셔서 삼일 밤들과 삼일 낮들을 계시다가 죄가 없으시므로 사망의 권세와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하셨습니다. 야슈아 마쉬아흐(Yahshua Mashiach)께서는 친히 죽임을 당하실 날이 유월절(逾越節)이라고 마26: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에는 장사지남을 당하셨으며 초실절 날에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 26:2 이를 후면 유월절임을 너희가 아나니,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배반당하여 넘겨지리라. 하시더라(권위역 킹 제임스 성경). 구약의 말씀이 패하여 진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또한 영원한 규례로 주신 것이 구약시대에는 문자적으로 행하여졌으나 신약시대에서는 의미적으로 적용하여 행해지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다. 예로 보면 성막의 7대 기구의 계시는 「야슈아 마쉬아흐(Yahshua Mashiach)의 사역」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성막의 7대 절기의 계시는 「야슈아 마쉬아흐(Yahshua Mashiach)의 생애」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해하는 신앙인으로 되어 가게 하시어 성경대로 행하는 삶을 누려가게 하신다.

성경에는 야슈아 마쉬아흐(Yahshua Mashiach)께서 돌아가시기 전 유월절 열세 전부터 기록이 되어있다(요 12: 1). 유월절 열세 전날(1월 8일 목)에는 죽었던 나사로 집에서 만찬을 나누실 때 야슈아마쉬아흐(Yahshua Mashiach)의 장례를 위하여 예비해 두었던 향유(ointment)를

마리아가 발에 부어드리시는 기록이 있다. 향유의 병을 깨뜨려서 부어 드렸다는 다는 것은 병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마개를 밀랍한 것이 추운 때라 굳어져 있으므로 이것을 깬 것이지 향유병을 깬 것이 아니다.

그 이튿날 유월절 다섯 전(1월 9일 금)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날이 어두워지므로 베다니로 나오셔서 주무시고 유월절 나흘 날(1월 10일 토)에는 성전을 청결케 하신다. 이 날은 계명의 안식일이었다. 유월절 사흘 전날(1월 11일 일)에는 성전에서 마21장-25장까지의 말씀을 하셨다. 유월절 이틀 전 날(1월 12일 월)에는 문둥이였던 시몬의 집에서 만찬을 하실 때 야슈아 마쉬아흐(Yahshua Mashiach)의 머리장에 장례를 위하여 예비해 두었던 향유를 부어 드리는 이름이 없는 한 여인이 와서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

유월절 하루전(1월 13일 화)에는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였고 저녁에 해가 지면서 유월절(1월 14일 수)이 시작 되면서 야슈아 마쉬아흐(Yahshua Mashiach)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시작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무교절이 시작 되면서 만찬을 먹는 의식이 있는데 주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하므로 하루 일찍 제자들과 의식을 행하시면서 ‘내가 이 유월절 양을 먹기를 바라고 바랐노라’ 말씀하십니다(눅 22:15). 눅 22:15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노라. 특별히 무교절 의식에는 무교병(죄가 없으신 야슈아의 몸)과 포도즙(야슈아의 보혈)과 쓴 나물(고난)을 소금물(고통의 눈물)에 찍어 먹는다.

유대인들은 한주일 시작되는 샤바에는 빵을 소금에 찍어먹으며 포도즙을 마시는 의식을 행하고 월삭이 시작되는 날에 일곱 명절이 시작되는 날에 행하면서 도 수건이 가리워져서 지금까지도 행하고 있으나 의미를 모르고 있다. 주님께서 생명의 빵과 보혈을 의미하는 포도즙을 나누면서 유월절이 시작되는 시간에 최후의 만찬을 시작하셨다.

그 시간은 밤 일경 시간(해진 후 ~ 오후10시경)에 행하셨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와 잠하심은 이경 시간(오후 10시경 ~ 오전 1시경)에 행하였고 삼경시간(오전 1경 ~ 4시경)에는 종교재판으로 그해의 대제사장인 카이파스(Caiaphas)에게 끌려가셨다가 안나스(Annas)에게 그 후에는 공회를 열어서 사경시간(오전 4시 ~ 해 뜰때)에 그해 총독인 필라토스(Pilate)에게 넘겨지셨다가 헤롯드(Herod)에게 보내어졌다가 다시 필라토스(Pilate)에게 보내어 진후에 오전 6시경(요 19:14)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지신 후에 3시간동안 비아돌로로사(The ViaDolorosa) 길을 나무를 지시고 걸어가신 후에 제 3시경(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제9시경(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다.

운명하신 후에 니고데모(Nicodemus)가 가져온 몰약과 알로에(myrrh and aloes)를 바르고 부자의 새 무덤인 아리마대 요셉(Joseph of Arimathea)의 묘에 장사되시고(사 53:9, 마27:57-60) 봉인되었다. 사53:9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죽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 27:57 저녁이 되었을 때에 요셉이라 하는 아리마대의 부자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마 27:58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매 이에 빌라도가 몸을 넘겨주라고 명령하거늘 마 27:59 요셉이 그 몸을 가져다가 깨끗한 아마포로 싸서 마 27:60 바위 속에 관 자기의 새 무덤에 그 몸을 두고 큰 돌을 굴러 돌무덤 입구에 놓고 떠나가니라.

무교절(1월 15일 목)에는 명절의 안식일 이므로 여인들이 쉬었다가 무교절 두 번째 날(1월 16일 금)에 기름을 붓고자하여 향료(spices)와 향품(ointment)을 사가지고 온다(막 16:1, 눅 23:56) 막 16:1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브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품을 사 두었더라.

눅 23:56 돌아가서 향품과

원장 김수정
직은 구름의집 선교회

기름을 예비한 뒤 명령에 따라 안식일에 안식하더라. 무교절 세 번째 날(1월 17일 토)은 계명의 안식일이라 여인들이 쉬었다(눅 23:56하) 무교절 네 번째 날(1월 18일 주일)은 야슈아 마쉬아흐(Yahshua Mashiach)께서 안식일 끝나자 안식후 첫날이 되는 첫 시간에 부활하셨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개신교인들은 성탄절은 태양신(太陽神)의 축제일을 기록과 화하여 제정해서 지키고 있으며, 부활절은 월신(月神)의 축제일을 기독교 화하여 제정하여 지킨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날들을 이방신의 축제일들에 맞추어서 지키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화 된 것을 가장 미워하신다. 부활절(Easter day) 날짜를 결정할 때는 콘스탄틴 왕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론이 정리된 후에 그 기점을 춘분이 지나고, 음력(陰曆) 만월이 지난 후에 오는 주일을 부활절로 제정하여 지키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이 기점은 성경에 근거하여 정해진 것이 아니다. 성경과는 무관하고 사람들이 제정하여 지키는 날 일뿐이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날인 부활하신 날을 이방영신인 ‘Easter day’라고 부르는 일은 참으로 참담된 것이다.

현 교계는 사순절(四旬節)의 마지막 주간(Holy Week)을 수난주일 혹은 고난주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다. 마지막 주간의 금요일을 성금요일로 야슈아께서 돌아가신 날로 지킨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날은 어린양을 잡는 유월절 날이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요 1:29)으로 야슈아 마쉬아흐(Yahshua Mashiach)께서 유월절 날에 제 3시(오전 9시) 그 시간에 못 박히시고 6시간 후 제 9시(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다.

(다음호에 계속)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담임 이규필 목사
(전동보수 총회장)

주일예배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오후 7시30분
금요일아기기도회 오후 9시(구역예배) 각 구역별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교회



담임 전전희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032)505-3351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온교회



담임 조영만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오전 11시 30분
주일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예배 오후 8시 30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9-2 (현대프라자 301호)
☎070-7501-2584 핸드폰 010-5355-2584
다음카페 http://cafe.daum.net/choym.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소망교회



담임 서동기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02)3296-0340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강대일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담임 임상국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담임 서재식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산천동 707-58 401호
☎(031)315-829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담임 고정규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1로 52-1
☎(031)312-2613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훈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오후 2:00
삼일예배 오후 7:30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북로 62-5(봉곡리 55-6)
☎(041)356-0644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심교회



담임 사정열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 밤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심야작정기도회 오후 9:00(365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4-4
H.P : 010-5225-1253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장한국 목사
(전리목회장)

주일예배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
새벽예배 새벽 5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01호(내송동)
홈페이지 http://jicn.kr ☎031)424-7621,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임마누엘교회



담임 백문성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낮예배 오전 11시
주일찬양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553-5
☎ 031-406-7793 H.P : 010-2479-7793

한기보협, 신임대표회장엔 한홍교 목사 당선

한기보협 부흥과 발전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임시총회를 갖고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 대표회장 임기를 1회로, 정체성을 바꾸는 개혁을 단행할 터



말씀을 선포하면서 '육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가 되라'고 했다. 이어 기성우 목사(예장, 개혁 총회장)가 '국가 안정과 통일'을 위하여 백창준 목사(예장, 합동총회 총무)는 '한국교회와 협의회(총회, 단체)를 위하여' 특별 기도를 드렸다. 아울러 장사광(예장, 합동연합 총무)목사가 헌금기도를,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의 광고와 김태호(예장, 합동보수 총회장)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의 보수를 지향하고 지켜나가는 협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관을 개정하여, 심의를 거쳐 잘못된 것과 정치적인 것을 단호히 배제할 것이며, 새로운 개정안을 실행하는데 있어 이사회를 거쳐 상반기 중에 교단장들만 모여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대표회장 임기는 한번 하는 것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본회 정체성이 바뀌는 등 정관개정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기보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표회장실과 상임회장의 간막이를 제거하고 개방된 사무실에서 대표회장과 임원들이 얼굴을 맞대고 업무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아울러 넓어진 공간을 활용해서 1개월에 한번 교단장들, 공동회장들,

어른들, 이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회를 갖는다는 방침이며 설교는 각 교단장들이 돌아가면서 할 것이며, 임원구성에 있어서도 정치성을 가진 자는 배제하고, 참신하고 실무적인 인물들을 임원으로 등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이버신학을 개설하여 후배장성에 힘써 나간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소신을 피력했다. 한기보협 제33차 신임원은 다음과 같다.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예장, 개혁 총회장), 상임회장 신한철 목사(예장, 합동제일총회), 사무총장 김준희 목사(기독교한국성경회), 서기 조조복 목사(예장, 호헌총회), 회계 광영민 목사(예장, 에녹 총회장) 등이다.

국제에녹부흥사회 신년하례 및 월례회 가져

국제에녹부흥사회(총대표회장 광영민 목사)는 지난 29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동산교회(황선영 목사)에서 2018년 신년하례식 및 월례회를 갖고 회원 간의 우의를 다지는 단합대회 및 신년 하례식을 가졌다.

김선우 목사(감사단장)의 찬양인도에 이어 정사라 목사(사무처장)의 사회 최동석 목사(수석상임회장)의 기도, 꾸미오리 몸찬양으로 이어졌다. 총대표회장 광영민 목사는 행 1:8절을 인용 "성령의 능력으로"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광 대표회장은 오늘날은 신년하례식으로 모였으면서 2018년 표어는 "깨어 있으라"(마25:13)절을 본회의 표어를 삼았다고 했다. 올 한해 우리 부흥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면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 행 1장8절 말씀을 준비했다면서 사랑하는 열정으로 한 마음 되어 어떠한 고난도 압박도 감수하여 복음전도에 다같이 힘써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성령의 뜨거운 불 체험을 경험하는데 있어서 성경을 많이 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흥사로서 인격적인 품위를 갖추는 안 될 것이며, 우리 부흥사는 올 한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있어서 가는 곳마다 평



2부 순서로 월례회가 개최되어 이선안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안전토의에서 부부가 가입하면 한분만 회비내고 한 분은 가입비 50%를 감면해준다고 결의했다. 3부 순서로 총재 이흥희 목사는 "부흥사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12가지의 부흥사의 자질에 대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있는 부흥사가 되는데 참된 목회자의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날 동산교회 황선영 목사의 맛난 오찬으로 회원들 간의 더욱 돈독한 우의를 다지는 데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홍원표 목사, 이현주 목사, 황선영 목사, 백이삭 목사 조명이 목사 등이 가입했으며, 회원들은 생수를 들어 환영했다.



전북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취임

제3대 대표회장 이병진 목사 이임, 제4대 김종송 목사 취임

전북성시화운동본부 제3대 대표회장 이병진 목사(익산반석교회) 이임과 제4대 대표회장 김종송 목사(전주 한국살롱교회) 취임예배가 지난 4일 오후 3시 전북 한국살롱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에는 전운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동진 목사(전북성시화운동본부 초대 대표회장), 양태운 목사(군산성시화운동본부 초대 대표회장), 최원탁 목사(전북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구준서 목사(한일장신대 총장), 김상기 목사(전북도목회장), 김익신 목사(익산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 김도경 목사(군산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충일 목사(전주시기독교연합회 회장), 황인철 목사(전북도 경목회 회장), 전봉권 장로(전북홀리클럽 협동사무총장), 김남기 장로(전북장로회총연합회 회장), 송병희 장로(전주침례교회)를 비롯한 성시화운동 지도자들과 전지역 목회자들이 참석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또한 채영남 목사(광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정식 목사(광주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강희목 목사(광주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 공윤배 목사(광주성시화운동본부 교육훈련부원장), 장성길 목사(광주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등도 참석해 이취임을 축하했다.

최원탁 목사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본문으로 "길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최 목사는 "인생의 밤이 오고 역사의 밤이 온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친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참된 길"이라며 "그리스도인은 이 길을 최고의 보배로 알고 최고의 가치로 믿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함께 가자고 종용해야 한다. 바로 이 길이 성시화의 길"이라며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하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전운태 장로는 "성시화운동은 전교회가 전복음을 전사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운동"이라며 "이를 위해 기도운동, 전도운동, 사회책임감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전운태 장로는 "성시화운동은 전교회가 전복음을 전사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운동"이라며 "이를 위해 기도운동, 전도운동, 사회책임감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3대 대표회장으로 사역하면서 전도운동과 익산 할랄단지 반대운동에 앞장서 막아내는 등 복음전도와 사회책임에 앞장섰던 이병진 목사는 "전북의 교회들이 하나 되어 전북과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4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김



종송 목사는 "갈반이 제네바개혁 운동을 한 것처럼 전북의 교회들이 힘을 모아 하나님이 기뻐하시

는 전북을 만들어가는 일에 전심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3·1절 기념예배 및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

할렐루야!

성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각지 교단과 산하 교회들 위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로 사무실과 예배실을 준비하여 이전하였고, 99주년을 맞이하여 3·1절 기념 예배와 겸하여 이전 감사예배를 드리오니 회원 교단 및 단체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32대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 배상



한홍교 목사



신한철 목사



김준희 목사



조조복 목사



광영민 목사

❖ 일시 : 2018년 3월 2일(금) 오전 11시

❖ 장소 : 본회 예배실

❖ 주소 : 1번경 전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17길 25 호용빌딩 6층 603호

1번경 후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17길 25 호용빌딩 6층 601호

❖ 홈페이지 : http://www.hankibo.co.kr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40개 교단 및 단체 일동) TEL 02)2608-2190

III. 성막 영성과 구원 서정의 5단계 (19)

성막을 통한 구원사역의 비빌

〈지나호에 이어서〉

제4단계: 물두멍 단계(출 30:17-21, 행 2:38)

물두멍(세례) - 성령 세례 - 성령 임재(거듭남) 신부 단장(거룩함) (신랑 영접) 물두멍의 구조와 의미, 구조: 솥거울로 만든 큰대야. 직경 3구빗 (1.5m)의 원형 그릇, 의미: ① 거울처럼 주님이 우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지켜보신다는 의미, ② 작은 죄라도 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의미, ③ 물은 세례와 성령 세례를 뜻함. 신부로 거듭남을 의미, ④ 신부 단장하고 성령으로 오신 신랑을 만나는 곳, 내용: ① 물두멍과 세례, ② 거듭남, ③ 세마포와 신부 단장, ④ 성령 세례와 신랑 영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후 4:18)

1. 물두멍과 세례

성막에 있어서 물두멍은 회막문, 성막뜰 변제단 다음으로 네 번째로 거쳐야 하는 단계이다. 오늘날 세례를 상징하는 이 물두멍은 변제단 다음 성막 앞에 놓여 있는 것으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왜냐하면 이곳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 3: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 3:5) 이곳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다. 그럼 이곳까지는 어떤 사람이 올 수 있는가? 이곳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로, 회막문을 넘어, 회개의 성막뜰을 거쳐, 변제단에서 모든 죄와 더불어 자신이 죽어 의롭다 칭함 받은, 죄 없는 자들이다.

이 물두멍은 솥 거울로 만들어진 큰 물그릇으로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을 의미하며, 그곳에 담겨있는 물은 성령을 의미한다. 변제단에서 죄를 다 태운 다음 깨끗하고 의로운 마음이 되었으므로 물두멍에서 세례의식을 치른 뒤, 그 거울에 비춰진 모습은 죄 없는 의로운 자의 모습이다. 죄 없는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성령세례를 통하여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실 수가 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오늘날의 세례의 예표인 물두멍은 원죄로 인해 인간에게서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장소이며, 아주 성스러운 예식이 진행되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 의식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죄 없는 자가 거듭나는 의식이며(행 22:16), 둘째 회개함으로 선한 양심으로 회복된 것을 축하하는 의식이며(마 3:11, 뱀전 3:21), 셋째 성소에 들어가기 전 부정한 수족을 씻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의식이다(출 30:17-21, 요일 5:6, 요 3:8).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거룩하시므로 그의 자녀들도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 만나 주신다.

송택규 박사

JTNTV 주필



그러므로 죄 사함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하늘나라에 들어 갈 수 있다. 물두멍 예식은 성막 제사가 시작된 지 1400년 후 세례요한에 의하여 요단강에서 침례(세례)가 행해지고, 오늘날 세례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됨으로써 그 실체와 의미가 드러나게 되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마 3:11)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행 2:38)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행 22:16) 즉 변제단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게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 없는 의로운 자로 태어나, 물두멍 의식인 세례를 받는 동시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

2009년 2월 2일 내가 USC 병원 중환자실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은 새벽 2시 30분에 나를 깨우시고 나에게 질문을 하셨다. '저들에게(성도들)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나는 당황하여 '예수 잘 믿는 것이지요'라고 대답했더니 주님은 '아니다. 거듭남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시면서 '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하지 않겠나?' 하시면서, '거듭나지 못한 자가 어찌 나를 알겠느냐?' '거듭나지 못한 자가 어찌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거듭나지 못한 자가 어찌 구원을 얻고 나와 동행하겠느냐?'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세례를 주어 거듭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많으나 거듭나지 못한 채 믿는 자들이 많다는 말씀임을 알았다. 물론 불신자들의 구원도 중요하나, '등잔 밑이 어둡다'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님은 그것이 더 안타까우셨던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을 7장 19절 말씀을 염두에 두셨는지도 모르겠다.

(다음호에 계속)

대통령을 키운 어머니들

자신의 아이들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는 가슴 아픈 일을 여러 번 겪어야 했다. 로버트 케네디는 '케네디가 그런 비극을 겪으면서도 또다시 온 가족을 동원해서 치열한 정치판으로 뛰어든 이유가 무엇이었나?'는 질문을 받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그는 젊은 미소를 지으며 "저희 어머니를 만나 보셨나요?"라고 말했다.

로즈는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어머니 로즈 피츠제럴드 케네디는 보스턴 시장의 딸로 태어났다. 1974년에 펴낸 자서전에서 '나는 위대한 책의 작가나 걸작을 남긴 화가보다는 위대한 아들, 딸을 둔 위대한 어머니로 알려져 있고 싶다'고 말했다. 로즈는 자녀를 인제로 길러내는 게 여성의 보람이라고 생각했다. 로즈 여사의 교육법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 로즈 여사는 4남 5녀의 생년월일, 건강, 기타 성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한 육아일기를 빈틈없이 썼고 육아일기를 교육 자료로 삼았다. 로즈는 자녀들의 관심과 흥미를 만족시키려고 물건을 살 때도 늘 함께 다녔다.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에는 알 아듣기 쉽게 차근차근 대답해 주었다. 외할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로,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그 아들로 이어진 끈끈한 관계는 로즈피츠제럴드와 로즈의 아버지의 관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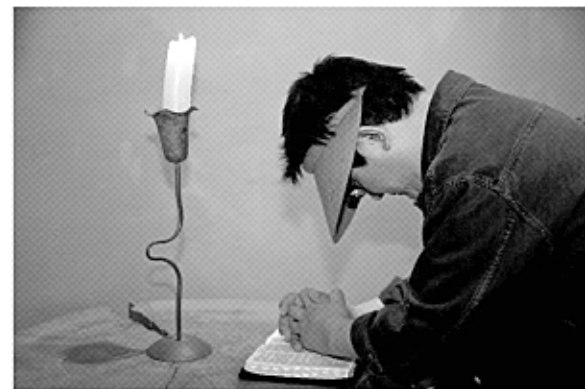
로즈의 어머니 메리 조세핀 하논은 농촌 출신 아가씨치고는 용모가 뛰어나고 아주 멋졌다. 내성적이고 신앙심이 깊던 메리는 시장인 남편의 공적 생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대신 로즈가 10대부터 어머니를 대신하여 그 역할을 맡았다. 로즈는 '정치에 대한 내 사랑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다'고 밝혔다. "아버지는 내게 역사와 정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해주셨고 생각해 보도록 배려해 주셨다." 로즈에게 '어머니'라는 단어는 여성형 명사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능동적인 동사로서 '최고의 직업'을 뜻한다. 그리고 그녀는 엄청난 힘을 기울였다. 회고록 '추억의 순간들(Times to Remember)'에서 로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아이를 기르는 일을 사람과 의무 때문에 해야 하는 일로 여기지 않았다. 나는 세상의 그 어떤 명예로운 직업 못지않게 재미있고 도전적이며, 최선의 노력을 요구하는 직업으로 생각한다." 로즈 여사는 식탁을 자녀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했다. 우선, 아이들에게 식사 시간을 꼭 지키게 했다. 어릴 때부터 시간 개념을 몸에 익히게 하려고 했다. 또 식사 시간을 가족들이 토론을 나누는 자리로 이용했다.

로즈 여사는 아이들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판을 마련해 두고 신문, 잡지 등에서 오린 중요한 기사를 붙여 놓았다. 식사 때 그 기사를 화제로 올리고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듣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민주적인 정신을 실천한 것이다. 플리머스 부두는 로즈가 스테이션건에 아홉 명의 아이들을 태우고 소풍 간 장소다. 로즈는 캄피치에 있는 저택에 가 있을 때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인디언 마을로 여행을 갔다.

유니스는 '우리는 차를 타고 인디언 보호 거주지로 가서 인디언들이 어떻게 사는 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우리가 본 것에 대해 질문했다'고 회상했다. 그것은 역사를 느끼게 해주는 로즈의 교육 방식이었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내는 간단한 시험을 싫어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즐겁게 해주고 싶어 했으며, 다른 아이들보다 앞서기를 원했다.

로즈 케네디와 조제프 케네디 부부는 네 아들에게 훌륭한 미래를 보장해 주려고 아



낌없이 투자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아직은 '대통령 당선자'라는 호칭이 익숙하지 않은 존 F. 케네디는 어린 시절 그가 받은 영향에 대해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머니 공이 더 크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한 분은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책을 읽어 주셨고, 플리머스 부두며 올드니스 교회 등 역사적인 장소에 많이 데려가 주셨다. 또 나에게 역사에 대한 흥미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타임지의 휴시디 기자에게 말했다.

케네디가는 별날 정도로 가족간의 유대가 끈끈하다. '케네디가는 자족적인 집단'이라고 로즈는 설명했다. 저녁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로 아이들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았다. 케네디 대통령은 '어머니는 우리가 자기 수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우리가 좋은 책을 읽고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조 케네디가 캘리포니아에서 영화 사업을 하고 있을 때는 한 번에 몇 주씩, 때로는 몇 달씩 출장을 갔다. 그러다 집에

돌아오면 저녁 식사 시간에 주로 아버지가 혼자서 유명 인사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아이들은 아버지와 점심을 함께 먹은 유명한 사람들과 그가 다녀온 재미있는 장소들에 관한 이야기에 매료당했다.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학교생활과 운동에 관한 일을 시시콜콜하게 적은 편지를 정기적으로 보냈는데, 아버지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들에게 일일이 답장을 써주었다. 조는 아이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아주 열성적인 아버지였다. 그는 자신이 지닌 막대한 재산과 그것이 발휘하는 영향력보다 아이들이 더 훌륭한 유산이라고 생각했다. 조는 아이들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조는 아이들이 기대에 못 미칠 때에는 엄하게 대했다. 조는 한마디로 무슨 일을 하건 이기라고 아이들을 가르쳤다.

조 역시 삶과 정치의 실체를 아이들에게 일깨워 주면서 아버지 몫을 다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대한 지적인 사색을 즐기기도 했다. 현재의 사건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어쨌든 로즈가 아이들과 실제로 '함께한 사람'이었다. 로즈는 아이들에게 현재에 뒤떨어지지 않으면서 역사상 큰 사건들을 생각해 보고 미래에 일어날 흥미로운 사건들을 그려보라고 촉구했다. 또 정치가 고귀한 일이라는 생각을 아이들에게 심어 주었다. 부모의 이런 뜻을 받아들여 네 아이들은 순서대로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자신의 자취를 남겼다.

질서정연함을 유지하려고 로즈는 규칙들을 정해 놓고 아이들이 그것을 어겼을 때는 회초리를 들었다. "어머니는 훌륭한 관우 선수가 되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오프팔로 때리는 솜씨는 대단하거든요."라고 아들 테디는 말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체벌해서는 안 된다고 요즘 전문가들은 주장하지만, 로즈는 아이들에게 체벌을 하던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손바닥이나 볼기를 몇 번 맞고 나면 회초리라는 말만 해도 아이들의 행동에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나는 사랑뿐만 아니라 제약도 두었다." 아이들을 때리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조도 아이들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휘둘렀다. 아이들이 제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로즈는 각자가 지닌 장점을 강조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각자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라고 가르쳤다." 로즈는 만이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이들 모두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키우고 싶다면 먼저 큰 아이가 부모에게 와서 "안녕히 주무십시오"하고 인사를 하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 동생들도 그렇게 따라 한다고 젊은 어머니들에게 조언한다. 로즈 케네디는 죽는 날까지도 어머니로서 의무를 다했다. 예전에 들춰 아들 재키를 때렸지만 "어머니는 모두를 결합시켜 주는 접착제와 같다."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 신입생모집요강



김창숙 목사

◆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술원 학장영의의 졸업장 수여함.

◆ 과정수로 후 세계로신학학술원을 통해 연정수업으로 (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과정: 찬양, 율동, 위법, 한국무용

수업요일: 매주 월, 수, 금

장소: 꾸미오리신교센터(경기도 양주시 고암동182-3)

문의: HP 010-4137-0796 (김창숙 목사)




세계로신학학술원 ·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

오순절교회협의회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전천서수련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영민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고후 3장 17절)

예배안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2층)
기도원예배	주일	오후 3:00	푸른초창기도원
유초등부예배	주일	오전 9:00	기도실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성전
청년대학부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2층)
새벽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6:00	지하성전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지하성전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성전
중고등부기도회	토요일	오후 4:00	기도실
2시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 이 나라 이 민족을 무당사상으로부터 출애굽하자!

서울시 광진구 외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전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여민이집 [02-464-3107]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표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2018 동여

성경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당회장 정대성 목사

예/배/시/간/안/내

- 매일새벽예배: 새벽 5:30
-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 저녁 기도회: 매일 오후 8:00
- 토요직분자교육: 오후 7:00
- 청년/학생부: 통합예배
- 수요예배: 오후 7:30
- 금요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7:30

경기도 김포시 운곡로9번길 15, (장기동 131) ☎ 010-6418-3468

에녹부흥신학 모집



곽영민 목사



이호성 목사



임순욱 박사



정기남 목사



김명욱 박사

김영제 전도사

교수진

곽영민 교수, 임순욱 교수, 김명욱 교수, 김진우 교수, 박경자 교수, 김성기 교수, 최동준 교수, 오성준 교수, 윤동훈 교수, 김경우 교수, 윤주만 교수, 최혜숙 교수, 이선한 교수, 김지연 교수

과정	수업일	학제
기독교예배 과정	매주 목, 금, 토	2년 6학기
신학부 과정	매주 목, 금, 토	3년 9학기
목회대학원 과정	매주(저녁) 월, 화	2년 6학기
신학연구원 과정	매주(저녁) 월, 화	3년 9학기
학술원	매주 토	1년 3학기
찬양치유교실	매주 목	2년 6학기

※과정 통신으로 교육할 수 있음. 교단 가입 환영

2018 에녹부흥신학은

*교육은 명학 없이 1년 3학기제로 운영합니다.

*정통 장로교 신학을 바탕으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교육과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녹)에서 소정의 과정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녹총회는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정식 회원 교단이며, 본 협의회로부터 신학 교육을 인정 받았습니다.

*총회장 곽영민 목사는 본 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공동회장 및 신학위원 회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부흥사 및 영웅 사역자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분은 "국제에녹부흥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장소: (인천) 등불교회,

· 주소: 인천 광역시 남구 능해길 5(구, 송의1동 441-45)

· 문의: (사무국장) 010-6778-0651, (대표) 010-2080-0651

웨신총회 제102회기 확대실행위원연석회의의 가져

호남노회장 박정균 목사(번성교회)회갑연 축하케익커팅 축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 허창범 목사 이하 웨신)는 지난 2월1일(목) 오전 11시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소재 번성교회(담임목사 박정균)에서 제102회기 확대실행위원연석회의를 열고 미진 안전 처리와 2018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총회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각 노회와 실행위원회가 앞장 서 줄 것을 결의했다.

이날 번성교회 본당에서 50여 명의 임원과 실행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예배가 총회 회의록서사 임용선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어 특별찬양에 김미라 목사(주한 양교회), 총회장 허창범 목사는 창 22:9-18절을 중심으로 "현신의 축복"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직전총회장 이영종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순서는 부총회장 신인창 목사(대외총무)의 사회로 진행되어 부노회장 마순덕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어 웨신총회 50여 명의 임원 및 실행위원의 축하와 박수 받는 가운데 호남노회장 박정균 목사(번성교회)의 회갑 축하 연이 성대하게 베풀어졌다. 이날 회갑을 맞은 박 목사는 전날 생신을 맞았던 총회장 허창범 목사(대외총무)와 함께 축하케익커팅을 한 후 본교회 성도들의 축하와 찬양과 교회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을 교단 원로 목사들, 내빈



들에게도 증명했다.

이날 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건축 집사는 간증을 통해 "건강을 잃은 지 20여 년 동안 힘들게 살아왔지만 번성교회를 출석하고 박정균 목사의 기도를 받은 후 하나님

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아 건강이 회복되어 그동안 못했던 피아노 반주와 찬양을 하게 되어 너무도 기쁘다며 간증했다. 이어 김주연 집사는 부부가 같이 암 투병을 하다 남편이 소천하고 재산도 없고 2번의 암재발로 절망과 좌절로 힘들어할 때 본 교회 집사로부터 전도를 받아 2시간이 넘는 먼 거리에서 버스를 타고 번성교회를 찾아와 등록을 하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순간 엄청난 후 후 본교회 성도들의 축하와 찬양과 교회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을 교단 원로 목사들, 내빈

사할 때 까지 축복이 아니라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참된 부자요 축복받은 자이기에 남에게 베풀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남의 배움을 받으면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행복한 삶을 살자며 인사했다.

이어전 정성을 다하여 푸짐하게 식탁에 마련된 오찬을 즐기며 모두가 화기애애한 가운데 덕담을 나누면서 다시한번 호남노회장 박정균 목사의 회갑을 박수로 축하했다.

이어 총회장 허창범 목사의 사회로 제3부 연석회의가 진행되어 회계보고와 총무보고에 이어 여러 가지 산적한 안건이 도마에 올랐지만 총회의 발전과 2018년도 사업계획을 끝으로 결의하고 회무처리가 은혜가운데 마무리되었다.

한편 웨신총회와 지저스타임즈는 문서선교를 위하여 또는 상호 존중하고 양측의 유익을 목적으로 MOU를 체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웨신총회 총회장 허창범 목사(번성교회)와 지저스타임즈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가 업무제휴 약정서(MOU)에 기명인한 약정서를 교환하고 양측 대표가 총회실행위원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약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했다.

이날 웨신총회의 원로와 증경회장 및 총회임원과 전국 각 노회장을 초청하여 회갑연을 베풀어준 호남노회장 박정균 목사(번성교회)의 성도들에게 총회장 허창범 목사는 진심으로 감사와 축복을 기원했다. 그러면서 화기에 애한 가운데 총회의 성장과 현신하는데 앞장서자는 다짐으로 목양지를 향해 발길을 돌렸다.

웨신 김정옥 기자

웨신총회 2018년 강도사고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구원과 세계선교에 큰 꿈을 안고 비상하라



광고에 이어 증경총회장 이영종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 고시부 위원과 고시 응시자들이 함께 오찬을 나누고 제2부 필기고사, 설교실기, 면접에 이어 제3부 폐회식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연합노회에서 떡을 호남노회에서 과일을 보내왔으며 동서노회장 이병만 목사와 동문들이 격려 방문하여 각각 고시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등 총회의 뜨거운 관심과 격려 속에 치러진 강도사 고시는 엄숙하고 은혜가운데 성료 되었으며 강도사 연수와 목사인수 가이드라인 안내 등 앞으로 있을 진로에 대해 적절한 안내가 이어졌다.

총회장 허창범 목사는 "보수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의 버팀목이자

교계의 표준총회인 웨신총회 강도사고시에 응시자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구원과 세계선교에 큰 꿈을 안고 총회와 함께 나아가자고 격려하며 총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며 격려하였다. 강도사 고시에 응시한 이귀준 전도사는 이번 강도사 고시가 단지 자격을 얻으려거나 지식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닌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점검하고 사역의 자세를 가다듬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어 군림하는 자가 아닌 겸손하며 디모데전서 3장 1-7절의 목회자의 태도와 행동에서의 고결함을 지켜나가며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회생하고 땀과 노력을 다짐하였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구국 특별기도회

한국예비역기독교군인회남가주지회

한국예비역기독교군인회남가주지회(Korean Veterans Military Christian Fellowship in Southern CA, 이하 KVMCFSC 회장 김희창 목사)는 지난 10일(토) 영생장로교회(담임 김혜성 목사)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한 '구국 특별기도회'를 개최했다.

회장 김희창 목사는 특별 기도회 개최에 대해 "한국의 급박한 정치적 상황을 직시하고, 조국의 평화와 안정, 평화 겨울올림픽의 성공적 완료를 위해 매일 열리는 월례회를 이번 달에 긴급히 변경, 구국기도회로 갖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 기도회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사회 최학량 목사(미주 한

인군목회장), 대표 기도 단 김 목사, 성경봉독(요7:53-8:11) 최한규 집사(육군동지회 회장), 특송 목사장로부부중창단, 설교 문대용 목사(MCU 교수)가 각각 맡았다.

문 목사는 '간음한 여인'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간음한 여인을 향해 돌로 치라고 하신 것은 결국 정의와 사랑, 용서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크다. 간음한 여인이 예수 앞에서, 죄의 내용이 공표되는 현장에서, 돌을 든 사람들 앞에서 발발 떨고 있는 것은 마치 아와 법정에서 이미 죄 값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간음한 여인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율법도 아니고 사람들의 비난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을 것을 겸손함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기도회는 최정학 부회장의 인도로 △조국 대한민국 지킴과 한미행동의 국군 퇴도(김영구 목사) △조국 자유 대한민국 안보 국가 정통성 지키도(홍순건 목사) △평화올림픽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통일 문 열리길(표세홍 목사) 기도한 후, 김혜성 목사(영생장로교회 담임)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크리스천비전 신영현 기자

애국 여성들 기도로 뭉쳤다

세계한인기독교여성구국기도회 LA, OC지부

세계한인기독교여성구국기도회 LA, OC지부가 주최한 조국과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지난 3일(토) 라팔미에광고교회에서 열렸다.

기도회는 백정식 목사, 심민숙 코디, 강계기 권사, 손유진 사모로 이뤄진 찬양과 경배팀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됐다. 예배 인도

는 신 소피아 목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고전 3:1-9)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신 목사는 "우리의 모든 사역은 보이는 성과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원하시는 사역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들 이라고 말씀한다. 직분과 호칭에 걸 맞는 신실한 사

역자가 되자"고 전했다.

설교 후 예배 헌금을 위해서 정현운 사모가 기도한 후, 참석자들은 후하자 LA 코디의 인도로 각자 자신을 위한 회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회개 기도를 한 후, 김경일 목사가 축도함으로 기도모임을 은혜가운데 마쳤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기도제목으로 △대한민국 교회와 교계목회자들을 위하여-후하자 사모 △대한민국 위정자들과 민족을 위하여-박성민 목사 △북한과 북한 지하교회성도들과 탈북민들을 위하여-

이명희 목사 △세계선교회 선교사들을 위하여-김인숙 선교사 △다음세대와 부모 교육현장과 주일학교를 위하여-손유진 사모 △동성애 차별금지화 이슬람 대적과 다문화화를 위하여-임창숙 전도사 △미국의 영성회복과 LA, OC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심민숙 사모 △세여리(세계여성리더) 대표 신 소피아 목사와 제주 컨퍼런스, 월터 및 환우를 위하여 특별기도 후, 김경일 목사가 축도함으로 기도모임을 은혜가운데 마쳤다.

에스더 리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푸른솔교회

Pinetree Presbyterian Church

2018년도 교회포어: **오직 예수** (히 12:2)

2020 VISION

광주에서 전 세계로!!

From Gwangju To all over the world!

담임목사: 허창범

신학박사(고려대학교)신학대학원 총회장

부목사: 김미경 협동목사: 유현주, 양연석

시무장로: 공계용, 안종기, 허성준, 함용호

협동장로: 이병수

예배시간: 2월 28일

주일예배: 오전 10시 30분

2부 9:00 3부 11:00

주일오전: 오후 1:30

수요예배: 저녁 7:00

새벽예배: 새벽 5: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원로 11번(인근 47명무배다움 2차 후문 앞, 수원중원)

TEL: (062)953-4620 H.P: 010-8604-6075

"전능자의 손이우리와 함께 하신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복교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모상현

신학박사(고려대학교)신학대학원 총회장

담임목사: 소진우

PASTOR SO JIN WOO

..... 기록된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막 11:17)

에/배/안/내

대배배 1부: 오전 9:30분, 2부: 오전 11시

주일예배: 오후 7시, 유채부 오전 11시

주일예배: 주일학교 오전 11시

청년·대학부: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30분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예배: 금요일 오후 10시

토요일예배: 토요일 오후 10시

심야기도회: 매일 오후 10시(단, 주일과 수요일은 제외)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복교회

교회: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잠양동)

☎: (02)934-1232

http://www.mokpojuan.com

2월을 밝히는 분

부목사: 오영진, 박현수, 김성수, 김영민

협동목사: 정영호

전도사: 임영주, 송민재, 권태호, 신영호, 유민

협동전도사: 최정호

목회간사: 임영진, 권태호, 김민준, 김민준

신학박사(고려대학교)신학대학원 총회장

신학박사(고려대학교)신학대학원 총회장

신학박사(고려대학교)신학대학원 총회장

신학박사(고려대학교)신학대학원 총회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에/배/시/간

주일예배: 1회 오전 8:00

3회 오전 11:30

주일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00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주소: 58714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155(북동동)

☎ 061)272-4908, 팩스 061)276-1006

대한예수교장로회

번성교회

2018번성포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 4:2)

번성목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 14:23)

에/배/시/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저녁 7:30

금요부흥집회 저녁 7:30

새벽 기도회 새벽 5:00

담임목사: 박정균

Rev.D.Mini-Park Jeong Kyun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34(갈마동 338-22)

☎ 교회: 042) 523-3191 FAX: 523-3090

E-mail: pj2863@hanmail.net



2018 주님과 함께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 국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석TV 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성경: 시편 106:1-5 찬양: 204장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첫째 이유는 주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통치자보다는 선한 통치자를 만나는 것은 찬양할 만한 이유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의를 행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공의를 지키는 것은 지조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시인은 주께서 선택하신 자의 형통함과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선한 하나님께 우리도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영원을 사모하라!

성경: 시편 106:6-12 찬양: 521장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권적인 의지를 거역하고 여기는 언행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배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거듭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죄 사하실 근거를 마련하십니다(사 1:18). 그렇기에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전 3:11) 인간이 본능적으로 바라는 것은 영생으로의 구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시 27:1). 오늘도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목: 범죄의 요인은?

성경: 시편 106:21-29 찬양: 274장

성경에서 범죄한 목표(하나님)를 잃고 올바른

길(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를 짓기도 하지만 주를 잊어 버렸을 경우는 쉽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겔 18:20), 형제 여호와를 알라고 하신 말씀(호 6:3)을 무시하면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악한 자들을 내버려두시는데 그 이유는 구원하시자고 하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불의한 자는 천국을 받지 못합니다(고전 6:14~18). 그러니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과감히 끊는(딤후 2:19)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돌아오라!

성경: 시편 106:44-48 찬양: 421장

시인은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가나안에서 지었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방 민족의 압제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생을 돌보셨습니다. 시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주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 받았 습니다(사 43:7).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지금 이 때는 온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쇠뿔장을 꺾으시는 하나님!

성경: 시편 107:13-16 찬양: 395장

'금홀'(라합)이란 모태에 아이를 품은 어머니가 아주 조심스럽게 아이를 보호하듯 취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겔을겔을마다 아이를 위해 보호하는 사람이 바로 '금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징계를 통해 그 마음을 낮추셨습니다. 고난이 계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회개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갇혀 있던 어둠과 사망의 그늘로부터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들을 결박하던 쇠사슬도 끊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바로 감사입니다. 찬송입니다. 뭇문을 깨뜨리시며 쇠뿔장을 꺾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대

성경: 시편 108:1-6 찬양: 21장

하나님의 '인자하심'(헤레드)은 죄인들을 향해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행위언약을 어긴 죄인들은 벌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지만, 금홀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더하여 그 기쁘신 뜻대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마음

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했으면 실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을 다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찬양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간증과 찬송은 개인을 넘어 온 세상에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만민 중에서, 열방 중에서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어!

성경: 시편 109:1-6 찬양: 274장

말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냅니다. 시인은 거친 감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2절의 표현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시인을 속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고통 중에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이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을 그 사랑을 원수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던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했을지라도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에 더욱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고난의 유익!

성경: 시편 109:21-31 찬양: 339장

성도의 고난은 세 방면에서 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히 12:6), 자연 재해 등에 의해서 생기는 고난(막 4:38)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을 단련시키시기 위하여 허락하는 고난(욥 23:10)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도 하더라도 성도에게 있어 고난은 유익을 가져다줍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주의 물례를 배우기도 합니다. 시인은 석양의 그림자 같은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시인의 호소는 마치 가뭄 유대에 의해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에게 넘겨져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을 줄 것을 소망하고 힘을 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목: 주의 권능의 날에!

성경: 시편 110:1-7 찬양: 80장

시편 110편은 미래의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쓴 예언시입니다. 다윗은 미래의 메시아를 바라보며 자신은 그의 신하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미래에 오실 메시아 앞에 엎드려 신하의 예를 표한 것과 같이 우리들도 다시 오실 메시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라"고 하니 "네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는 사람들은 정직한 삶을 살기 때문에 중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남에게 베풀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며 꾸어 주는 자, 주를 경외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출애굽의 하나님!

성경: 시편 114:1-8 찬양: 376장

시편 114편은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일을 주제로 한 서사시입니다. 특히 유월절에 부르기 위해서 출애굽 때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과거의 실수를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는 그림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통한 창조의 완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늘 빛

1 하늘 빛

하늘 성소의 하늘 빛을 생명의 떡을 구워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주려고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신
진리 빛 주님의 사랑의 생명의 떡 속에 하늘 빛

하늘 성소의 하늘 빛을 촛불을 꺼지지 않게 하여
성령의 기름으로 불을 밝혀 어둠에 빛을 주는 촛대의 촛불 속
희생과 사랑의 하늘 빛

하늘 성소의 하늘 빛을 남을 위하여
추고자 하는 것세마네 주님의 기도의 죽음의
순교의 기도의 향을 피우는 불향단의 하늘 빛

2 하늘의 하늘 빛

하늘의 하늘 지성소의 하늘 빛
늘 따사로운 오묘한 사랑의 빛나는 영광의
보좌의 하나님 품안에 감추어진 생명의 하늘 빛

하늘의 하늘 지성소의 하늘 빛
법계속 온 하나님의 백성을 늘 사랑으로
하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의 하늘 빛

하늘의 하늘 지성소의 하늘 빛
생명의 강물 속 늘 잔잔히 흐르는 생명의 물속 하늘 빛
생명의 나무 달달이 열리는 열두 과실의 생명의 열매의 하늘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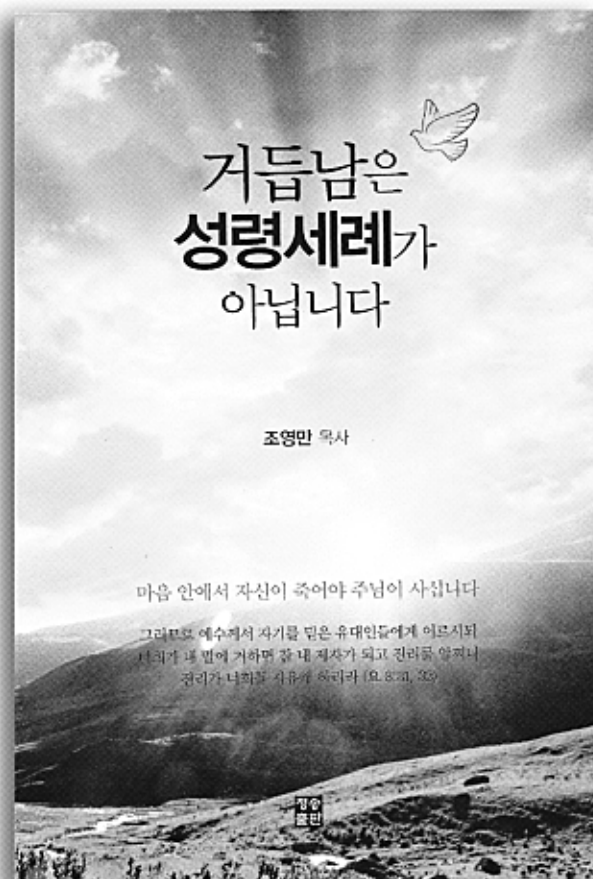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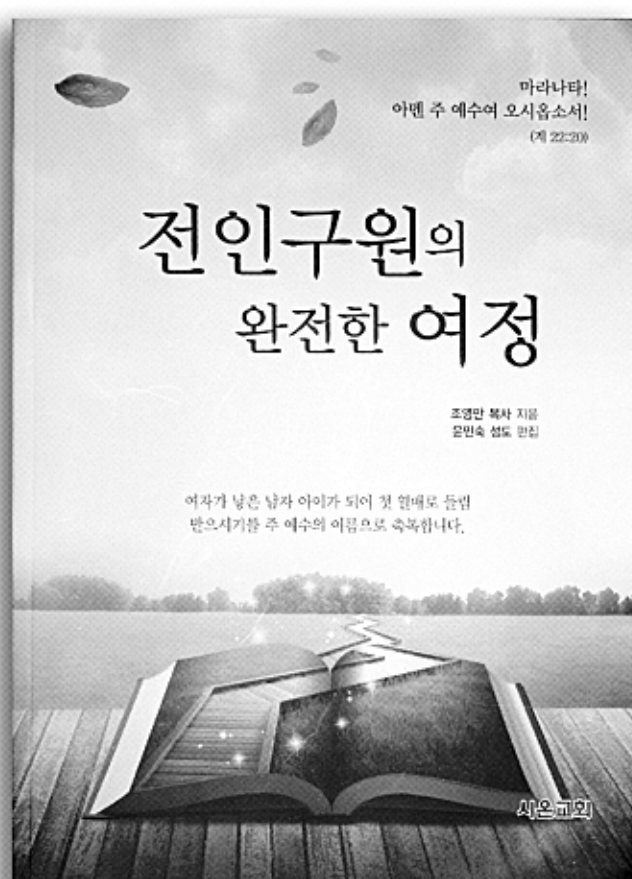
하늘의 하늘 지성소의 하늘 빛
두 날개 속 사랑의 눈으로 보라 하시는 두 날개 속 하늘 빛
늘 꺼지지 않는 불기둥 속에서 빛을 발하는 영원한
하나님 사랑의 하늘 빛



시 김지연 목사



신간 “전 인구원의 완전한 여정”



거듭남을 성령세례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거듭남)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이른 바(거듭남)을 늦은 바(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종해를 건너는 것(거듭남)을 요단을 건너는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거듭남)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어린 아이(거듭남)을 장성한 자(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거듭남)을 성령한 자들(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중생의 씻음(거듭남)을 성령의 새몸체 하심(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민음(거듭남)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은혜(거듭남)를 은혜위로 은혜(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영광(거듭남)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너희와 함께 거하심(거듭남)을 너희 속에 계시게(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새 영(거듭남)을 새 마음(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구원의 속옷(거듭남)을 의의 갈옷(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이브라함이 85세에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먹고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것(거듭남)을 99세에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받은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저택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거듭남)을 제자들이 주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다가 오순절에 약속하신 것을 받은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령의 은총을 죽을 때까지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일에 실패함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첫 열매로 들림 받을 수 없습니다.



저자 조영만

-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
- 총화신학교
- 국제신학대학원(M.Div.M.A)
- 인천 종합건설본부 신우회 지도목사
- 인천 연수구 신우회 지도목사
- 시에장합동보수연합신학교 이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교단 총무
- JTNTV방송, 지저스타임즈 운영이사
- CTS 경인방송 운영이사
- 현재 인천시문장교로 담임목사

책 주문 방법

주문자 성명, 입금자 성명, 받으실 주소, 신청 권수,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주세요!

- 연락처 : 010-5355-2584
- 이메일 : choym7777@hanmail.net
- 예금주 : 시온교회
- 신한은행 : 110-029-475990
- 책 가격 : 15,000원
- 배송가 : 시온의 딸들에게 예복을 http://cafe.daum.net/choym.com



제50회 기념 국가조찬기도회 3월 8일 킨텍스에서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국가 조찬기도회가 올해로 제50주년이 된다. 매년 대통령을 초청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회장 채의승 장로)와 대한민국 교회조찬기도회(회장 김진표 의원)가 내달 3월 8일 일산 킨텍스에서 '제50회 국가조찬기도회'를 갖게 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이 동원될 전망이다.

올해로 제50주년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대회 측에 의하면 역대 규모로 치러질 계획이며, 특히 대한민국교회조찬기도회 김진표 회장은 "전 세계 기도용사가 한 자리에 모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장을 만들고 싶다"며 "기도회에 해외지도 대표와 해외동포 등을 초청해 가장 큰 규모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작년까지 서

울 코엑스에서 기도회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자 장소를 일산 킨텍스로 선정하게 됐다면서 김진표 회장은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교회 성도들과 힘을 합치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 조찬기도회 설교는 전년도에 이어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맡는다. 제5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기독교계가 교파를 초월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는 취지로 1968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 기도회의 정신은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에서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제안에 의해서 참석했던 위정자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뿌리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어느 때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좋은 일과 나쁜 일, 기쁜 일과 슬픈 일은 항상 함께 마련되고 그것이 인생의 살아가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지난 한 해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지켜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들고 답답했던 세월 이었다.

새해에는 좀 나아지기를 기대를 해 보지만 돌아가는 정세는 여전히 답답하기만 하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켜있는 백성들을 격려하며 용기를 주어도 모자랄 판에 지지분한 과거의 쓰레기통이나 뒤집어서 악취를 풍기고 있으니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다는 말인가? 물론 무조건 묻어두자는 말도 아니고 잘 못된 과거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도 결코 아

니다. 그러나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보는 자기 성찰의 겸손함과 포용의 너그러움 그리고 화해와 용서가 함께 가면 얼마나 좋을지 싶다.

하지만 아직은 한해가 시작되지 몇 안 되었으니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지켜보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아직은 많이 있다고 믿고 있으니가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함으로써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해 본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서울남부구치소, 가족관계 회복의 불씨가 되다"

『힘내라! 우리가족!! 가족사랑캠프』개최



서울남부구치소(소장 김종욱)는 2018. 2. 23.(금) 가족건강 증진을 위해 수용자와 가족 37명이 함께 하는 『힘내라! 우리가족!! 가족사랑캠프』를 가졌다.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참여가족은 점문강사와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사진 찍기, 가족케익 만들기 등 행사를 통해 「이해하기, 「가족사랑 확인하기, 「섬김의 약속」을 함께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구금으로 인한 수형자 가족관계의 단절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해 장기적인 가족생활을 설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서울남부구치소와 (사)교정자원봉사지원센터가 함께 준비했다.

『힘내라! 우리가족!! 가족사랑 캠프』에 참석한 자녀 K는 "작년 여름에 참석해서 아빠와 함께 만든 가족케익을 냉장고에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데, 오늘 새로 만든 케익으로 교체할 거예요"라며 수줍은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남부구치소소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소원해 질 수 있었던 가족관계가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기 바라며, 수형자와 가족 구성원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앞으로도 실속있는 행사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날개 치며 올라갈 것 같아요 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 로다"(사40:31) 아멘

칼럼/공주 두란노교회 박원근 목사



지저스타임즈 · 언론부흥사협의회

이사장 허창범 목사 (연부협 총재 웨신총회장)	사 장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 (발행인)	명예이사장 정기환 목사 (전원동교회)	부이사장 이규필 목사 (한동보수총회장)	부이사장 장한국 목사 (주시원교회)	부이사장 정대성 목사 (삼성중앙교회)	부이사장 강요섭 목사 (소복음복합교회)	부이사장 이윤자 목사 (부천별빛중앙교회 부국장)	부이사장 박수영 목사 (대구영복교회)	부이사장 박한규 목사	부이사장 이흥희 목사 (축복받은교회)	부이사장 한홍교 목사 (호헌총회장)	부이사장 박형취 목사 (성현교회)
언부협 대표회장 곽영민 목사 (예복교회)	총무국장 백운성 목사 (안신지사사장)	상임이사 곽동훈 목사 (대신·중부교회)	상임이사 홍형표 목사 (경목총회사무총장)	상임이사 박동훈 목사 (반월교회)	상임이사 최낙현 목사 (신광리교회)	상임이사 박용숙 목사 (주제성교회)	상임이사 이기환 목사 (모하메드교회)	상임이사 주은총 목사 (은총기도원장)	상임이사 이상중 목사 (새문교회)	상임이사 곽완근 목사 (두란노교회)	상임이사 김성익 목사 (신복교회)	상임이사 노병주 목사 (위재부장)	상임이사 오종철 목사 (홍성제일교회)
상임이사 박연자 목사 (명은교회)	상임이사 김선우 목사 (안부협공동회장)	상임이사 김창룡 목사 (8·15미대인교회)	상임이사 류기형 목사 (한동총회신자회 학장)	상임이사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상임이사 김부경 목사 (갈보리교회)	상임이사 유순옥 목사 (조예교정교회)	상임이사 김창숙 목사 (예능부교회)	상임이사 우제성 목사 (영동교회)	상임이사 배영자 목사 (금천시온교회)	상임이사 이선한 목사 (영광교회)	상임이사 김지연 목사 (성진교회)	상임이사 김정욱 목사 (웨신총무)	상임이사 임용선 목사 (회의목사기)

지저스타임즈 이사회
및 언론부흥사협의회에서는
문서선교에 뜻을 같이할
이사님과 능력 있는 부흥사님
의 가입을 전적 환영합니다.

현재 인터넷
(<http://jntv.kr> <http://cpj.kr>)
두 곳에서 많은 정보와 교계
뉴스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TEL 070)8230-0034, FAX겸음 032)672-3031, H.P 010_5468-6574
E-mail : jtprss@hanmail.net / jntvcpi@naver.com